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통해서 3년간 <마음과 생각>으로 묵상할 때 나타나는
변화

통하는 교회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 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김광중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6년 5월

Copyright © 2016 Gwangjung Kim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The Benefits of Tong Bible Quiet Time in Congregational Development: A Case Study of Tong Church, Gwangju Metropolitan City, Korea

Gwangjung Kim

Tong Church, Gwangju

In the meantime, Quiet Time is mainly centered on meditating the meaning of a passage in Korea Church. This way is helpful in our religious life. But, by doing this, the central ideas through the entire Bible are easily overlooked. In other words, there is a tendency to miss out God's thinking and heart to us through the whole Bible.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is focusing on understanding God's heart and thinking that runs throughout the Bible using the 'Tong' methodology.

What is 'Tong'? Tong is the way to enrich overall perception as watching the parts and the whole at the same time. Dr. Zoh is the first to use that way. Tong is a synthesis of the Western Scripture reading system and the Eastern Bible reading system, diachronic way to read the Bible and synchronic way to read the Bible. It shows more clearly God's heart and thinking that runs throughout the Bible.

This researcher led Bible study for young people for three years using 'Tong' methodology. And we found God's heart and thinking which had been overlooked before. So we read the Bible with one page per day for three years and analyzed the contents of contemplation on survey and interviews and recorded the meaning. This is the result of this study.

Young men involved in this project understood the Bible as one story and more focused on God's heart and thinking in the story. In order to follow the will of God we have to know the overall flow of the Bible. And we must know God's heart and thinking in the overall flow of the Bible. The best way to know God's heart and thinking is to read the Bible and meditate on the Bible in the order of history for three years.

국문초록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통해서 3년간 <마음과 생각>으로 묵상할 때 나타나는
변화

김광중

통하는 교회, 광주

그 동안 한국 교회에서 성경 묵상은 주로 구절의 의미에 집중되어왔다. 구절 묵상이 주는 신앙생활의 유익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생각들이 간과되기 쉽다.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놓치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러한 구절 묵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의 방법론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이란 무엇인가? ‘통’이라는 용어는 조병호 박사가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봄으로써 총체적 인식을 풍요롭게 하는 방식이다. ‘통’의 방법론은 서양의 분석적 경전 읽기 방식과 동양의 총체적 읽기 방식의 융합이며, 통시적 성경 읽기와 공시적 성경 읽기의 융합으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 준다.

본 연구자는 그 동안 ‘통’이란 방법론으로 3년 동안 청년성경공부를 지도해왔다. 청년들과 연구자와 함께 역사적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동안 구절묵상에서 얻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등을 읽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총 3년에 걸쳐 읽어가면서 얻는 묵상의 내용들을 설문과

인터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성을 기록한 것이 본 연구의 결과물이다.

이 결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은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며 그 이야기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하고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3년간 역사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목 차

감사의 글	vii
표 목차	ix
I. 서론	1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의의	6
연구의 방법과 범위	10
II. 통성경큐티 방법론	16
통(通) 방법론(Tong methodology)	18
마음과 생각	53
왜 3년인가?	60
소리-생각 방법론	68
III.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	80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성경 읽기	80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에서 성경 읽기	82
사고의 폭이 확장되는 성경 읽기	83
하나의 큰 스토리로 성경 읽기	84
IV.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의 효과	90
헤게모니의 종결	90
태도의 변화: 공감하는 세대	92
V. 프로젝트 실행과정: 통하는 교회의 성경 읽기	96
‘마음과 생각’ 큐티 교재 선정 (3년 큐티)	97

1년 12독 프로젝트	107
그 외 구체적인 실천	112
VI. 결과분석	114
조사개요	114
조사내용	115
도표제시	119
결과분석	130
VII. 결론	132
참고 문헌	138

표 목차

<표1> ‘마음과 생각’ 큐티 설문지	10
<표2> ‘일년일독 통독성경’ 에 따른 성경 배열	23
<표3> 구약성경의 재배열	27
<표4> 신약성경의 재배열	29
<표5> 성경의 7 개 트랙과 분위기	32
<표6> 성경의 7 개의 스텝	33
<표7> 7 트랙, 20 마당, 40 즐기	37
<표8> ‘마음과 생각’ 큐티 1년차	61
<표9> ‘마음과 생각’ 큐티 2년차	62
<표10> ‘마음과 생각’ 큐티 3년차	63
<표11> ‘마음과 생각’ 큐티 3년과 20 마당	65
<표12>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의 네 요소	88
<표13> 월별 큐티 순서표	97
<표14> 주일 소그룹 큐티 나눔 계획안	100
<표15> 1년 12독 성경 읽기표	108
<표16> 1년 10독 성경 읽기표	110
<표17> 설문조사 개요	114
<표18> ‘마음과 생각’ 큐티의 장점	119
<표19> 기존 큐티 교재 큐티의 방향성	120
<표20> ‘마음과 생각’ 큐티의 방향성	122

<표21>	‘마음과 생각’	큐티의 효과1	123
<표22>	‘마음과 생각’	큐티의 효과2	124
<표23>	‘마음과 생각’	큐티의 효과3	125
<표24>	‘마음과 생각’	큐티의 효과4	126
<표25>	‘마음과 생각’	큐티와 태도 변화	127
<표26>	‘마음과 생각’	큐티와 가치관 변화	128
<표27>	‘마음과 생각’	큐티와 행동 변화	129

감사의 글

청년 목회에 뛰어들어 지 어느덧 17년이 되어갑니다. 교회의 물을 맑힐 청년들이 교회의 미래이고 이 땅의 미래라고 생각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통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성경통독원의 조병호 박사님과 내러포의 대가이신 드루대의 레너드 스윗 박사님을 만난 것은 가장 뜻 깊은 만남이었습니다. 이번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영적인 안목의 바탕이 되어주신 감리교신학대의 김영래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경에만 뜻을 두고 말씀대로만 사는 교회를 표방했을 때, 제 꿈에 공감하고 동고동락했던 통하는 교회의 청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청년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계속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와 세계 곳곳에서 기도와 후원을 보내주신 여러 지인 분들의 따뜻한 마음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말없이 기도하며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아내 양혜은 님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의 동역자이자 인생의 조언자이신 아버지 김용안 님과 어머니 최순희 님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제 I 장

서 론

연구의 목적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들어온 이후, 한국 교회는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유신 체제나 군사정권의 독재 하에서 민주화를 위한 소리를 높이는 등 사회 참여에 적극적이었다. 이후 한국 교회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며 곳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다양한 형태의 세미나, 수련회, 부흥회 등도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또 당시에는 한국 교회만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나라가 없었으며, 이는 한국 교회의 부흥기라고 불렸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의 좋은 모습 가운데 그에 대한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많은 교회, 많은 성경 읽기, 많은 큐티 교재가 있었지만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였고, 이는 다시 교회와 주변 신앙인들에게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개교회주의와 교회의 세습에 집착하고, 자기만족을 위한 편향적인 말씀 읽기는 폐해를 서서히 드러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며 개인의 삶도 성경을 따르지 않는 풍조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의 본질 즉, 복음의 본질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그 중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위기

대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¹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성경 가운데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첫걸음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타개하는 해결책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읽고 그 뜻을 계속 생각하는 것을 말씀 묵상이라고 한다. 특히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력과 유익을 끼치며 성도들을 말씀 묵상으로 이끌었던 여러 큐티(Quiet Time, Q.T.)² 교재들은 말씀 묵상의 과정을 여러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큐티 교재들은 말씀 묵상을 인도해 가기에 적절한 면도 있지만, 여러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 교회의 큐티 역사는 40 년이 넘었다.³ 지난 세월 속에서 많은 한국 교인들은 성경의 일부분을 묵상하고 적용점을 발견하는 것을 큐티라고 인식해 왔다. 즉 큐티를 한다는 것을 절 단위로 끊어진 짧은 분량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신의 삶에 비추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 볼 수 있다.

¹ 2008년 6월 2일 국내의 신학자 100명이 시국선언을 통해 “교회,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공동대표 조병호, 박종천 “교회,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중앙일보 2008년 5월 1일).

² 필자는 본 연구에서 ‘큐티’와 ‘말씀 묵상’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³ 정성국, 지형은, 송인규, *한국 교회 큐티 운동 다시 보기-교회탐구포럼05* (서울: IVP, 2015), 11.

⁴ 큐티는 매일 일정시간 동안 하나님과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으로, 성경을 묵상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진리를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이다. 정미형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운 하용조의 큐티식 강해설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2014), 24.

그러나 큐티를 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 큐티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큐티의 유래를 살펴봐야 하는데, 1600년대 초의 루이스 배일리(Lewis Bayly)에게서 유래를 찾은 김진홍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⁵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견해는 188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후퍼(Hooper)와 손톤(Thornton)이 주축이 된 경건 운동을 큐티의 시작으로 본다. 그런데 김진홍은 기존의 큐티 유래를 남긴 기록이 모두 2차 자료이며, 출처를 밝히지 못하거나 서지가 정확하지 않으며, 2차 자료 사이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반면 배일리는 1611년경 출판한 저서 ‘Practice of Piety’에서 제안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실제적인 방법들로 말씀, 묵상, 기도 등으로 구성된 경건 훈련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의 구성이 오늘날 큐티의 전신(前身)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큐티의 유래를 19세기 보다 훨씬 앞선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렉시오 디비나는 중세 천년을 거치면서 그 본질이 변질된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와 철저한 신학적 검증이 필요하다.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큐티의 시작을 1600년대 루이스 배일리의 경건 훈련으로 보고, 큐티의 목적도 배일리의 경건 훈련에서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배일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경건한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가 되고 이같은 구원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경건의 연습에 전념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한 장 읽고 묵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일리는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고 권면한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에 임해야 하고, 경건의 연습은 말씀, 묵상, 기도이며 이 과정이 바로 큐티이다.⁷

⁵ 김진홍, “韓國教會 敬虔訓練으로서의 QT 研究와 適用方案: Lectio Divina의 批評的觀點에서- “A Study on QT as the Practice of Piety and Its Application Method in Korean Church: With a Critical View of Lectio Divina,”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08), 60.

⁶ 본고에서 다룬 부분은 이 논문을 요약 정리 하였음. Ibid., 60-63.

⁷ 본고에서 다룬 부분은 이 책을 요약 정리 하였음. 루이스 배일리,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그러므로 큐티는 하나님을 알고 그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큐티 교재는 성경 전체 중 일부분에만 국한하여 묵상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좀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다.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는 하나의 이야기인데, 존 칼빈이 제네바 성경에서 처음으로 장과 절을 나눴고, 이를 킹제임스 성경이 따라 한 것이다.⁸ 그리고 한글 성경의 장과 절 구분은 전통적으로 영어 성경의 장과 절 구분법을 따랐다.⁹ 따라서 말씀 묵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큐티 교재들 역시 이러한 성경에서 본문을 가져오면서, 이 때의 본문으로 절 단위로 끊어진 짧은 구절들을 택했던 것이다.

한편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인데 기존 큐티 교재들은 거의 묵상을 달아주는 형태였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하게 하였다. 이러한 묵상은 큐티 교재의 편집자들의 묵상이지 큐티를 하는 당사자의 묵상은 아니다. 또한 편집자들의 묵상을 읽는 것이 성도들에게 마음에 위로와 위안을 주는 측면은 있었지만 삶의 변화로 이끌지는 못하였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기존 큐티 교재의 본문에는 성경 전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조계광, 안보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19, 93, 209.

⁸ 레너드 스위트 “성경을 이 시대의 문화로 읽고 소통해서 예수 재발견해야,” (기독교타임즈 2014년 1월 22일).

⁹ 네이버 지식백과, 『라이프성경사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93601&cid=50762&categoryId=51387#TABLE_OF_CONTENT2 (2016년 3월 23일 접속).

점이다. 이는 큐티 교재의 편집자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편중된 편집을 했기 때문이다. 목상이 쉽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본문으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편식하게 하였는데, 같은 큐티 교재로 몇 년을 목상해도 성경 한 권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한 부분을 본문으로 자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하는 교회가 사례가 되어, 큐티에 앞서 성경통독이 뒷받침되고 목상할 하루의 분량을 성경 한 장으로 할 때 큐티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상이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 때, 성경통독과 목상은 역사 순서에 따라 이루어져야하는데, 성경 전체가 시간 순서에 따라 동시대의 사건끼리 연결되어 있을 때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일년일독 통독성경’¹⁰과 ‘마음과 생각’¹¹을 채택했다. ‘일년일독 통독성경’은 장르별로 되어 있는 기존 성경을 역사 순서에 따라 재배열한 성경이고, ‘마음과 생각’은 ‘일년일독 통독성경’에 따라 매일의 큐티 분량을 성경 한 장으로 제시한 큐티 교재이다.

‘일년일독 통독성경’으로 성경통독을 하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성경을 매일 한 장씩 목상할 때, 3년이면 역사 순서에 따라 성경 전체를 목상할 수 있다. 이러한 목상법을 훈련한 통하는 교회의 청년들은 주일예배의 설교와 성경공부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며 삶 속에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게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목회를 해 왔다. 또 성경은 어릴 때 읽을 만한 책이며,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그 가치가 성경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말씀 훈련에 전념했다. 그 결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로서 든든히 서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

¹⁰ 조병호, *일년일독 통독성경* (서울: 통독원, 2011).

¹¹ 조병호, *마음과 생각 12월호* (서울: 통독원, 2014).

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통해 3년간 ‘마음과 생각’으로 묵상하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안하며, 본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묵상이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 나아가 한국 교회에 끼치게 될 유익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연구의 의의

그동안 한국 교회는 큐티의 방법을 개발하고 향상시켜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매년 국내에 쏟아지는 큐티 교재와 큐티 관련 서적은 방대하며, 큐티에 관한 논문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큐티를 통하여 복음의 본질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적인 삶을 회복시키고자 고심한 끝에 나온 결과물들이다. 그런데 모든 큐티 교재들이 구와 절 중심으로 성경의 일부분만을 본문으로 택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를 알고 부분을 봐야 하며, 전체를 모르고 읽는 한 부분은 오히려 묵상을 방해할 수 있다.

큐티 교재 중 대표격인 생명의 삶, 매일성경, 큐티진(QTZine)을 보면 큐티의 방법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큐티의 분량 면에서는 공통적으로 묵상할 본문의 하루 분량으로 몇 개의 구절만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생명의 삶(두란노)”에서는 묵상할 본문을 몇 개의 절 단위로 나눠 끊어진 짧은 구절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마음에 와 닿거나 깨달은 말씀 또는 의문이 생기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큐티를 하는 사람의 영적 성숙도나 취향에 따라 말씀을 취사선택하게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둘째, “매일성경(성서유니온)”도 절 단위로 끊어서 본문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묵상하고 적용 점을 찾도록 하고 있으나, 성경의 일부분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편협한 시각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셋째, “큐티진(Young2080)”은 본문을 세 번 정도 읽으면서 하나님, 인간, 궁금한 부분에 표시하고, 표시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 자신의 상황, 기대하는 변화를 적고 구체적인 적용거리를 적게 한다. 이 때 제시하고 있는 본문도 짧은 몇 개의 구절이다.

위의 큐티 교재들은 한국 교회의 큐티와 성경 읽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묵상이나 해설과 같은 설명들을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삶으로의 적용 부분은 대체로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전체를 알지 못한 채 부분만 묵상하도록 짧은 본문을 제시했기 때문에 깨달은 내용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큐티 교재에 나온 묵상이나 해설을 읽으면 감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묵상과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큐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큐티 관련 서적에서는 묵상할 말씀의 분량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뚜렷한 지침조차 주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김양재, 홍성사)에서 김양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최우선이었다고 간증하고 자신의 큐티 방법을 실례로 제시하면서, 묵상할 말씀의 분량보다는 어떻게 삶에서 살아낼 것인가에 집중한다.¹²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하용조, 두란노)에서 하용조는 자신의 큐티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김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찾으라고 권면한다.¹³

『큐티가 어려우십니까?』(라채광, 두란노)에서 라채광은 말씀 묵상의 세 가지 원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찰함’, ‘메시지를 찾음’, ‘적용을 찾아냄’

¹² 김양재,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서울: 홍성사, 2002).

¹³ 하용조,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서울: 두란노, 2008).

을 이야기한다.¹⁴

『큐티 라이프』(김은애, 두란노)에서 김은애는 큐티란 조용한 시간에 30분 정도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일대일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생각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한다.¹⁵

큐티 할 분량에 관한 좀 더 학문적인 자료 제시를 위해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기훈은 “큐티의 영성: 신학적 토대와 목회적 적용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2014)”에서 매일 읽을 본문의 분량은 적당하게 정하는 것이 좋은데, 큐티 책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책이 제시하고 있는 본문을 따라가면 되고, 성서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묵상하기에 부담되지 않는 양을 정하여 읽는 것이 좋다고 했다.¹⁶ 이와 같은 주장은 묵상할 말씀의 분량을 정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큐티를 하는 사람에게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병중은 “事例分析을 통한 韓國教會 QT 活用 方案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1)”에서 큐티를 할 때 말씀을 읽는 분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QT를 할 때 어느 정도의 분량을 읽고 묵상할지를 정해야 한다. 본인이 나름대로 정해서 QT를 한다면 이것은 본인 재량에 달려 있다. 때로는 한 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한 장이 될 수도 있다.¹⁷

즉, 말씀의 분량은 묵상하는 사람의 재량에 맡겨야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¹⁴ 라채광, *큐티가 어려우십니까?*(서울: 두란노, 2011).

¹⁵ 김은애, *큐티 라이프* (서울: 두란노, 2008).

¹⁶ 이기훈, “큐티의 영성: 신학적 토대와 목회적 적용,”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2013), 93-94, 174.

¹⁷ 김병중, “事例分析을 통한 韓國教會 QT 活用 方案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1), 73, 76.

개인의 성경 지식과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게 할 수 있다.

김철은 “기독교 목상이 대학생들의 주의력집중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3)”에서 목상의 절차를 5단계로 구분했으며, 그 중 2단계 ‘목상본문 읽기’, 3단계 ‘목상’, 4단계 ‘삶의 적용’에서 목상할 분량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하였다.¹⁸

목상할 구절을 2-3번 반복하여 정독한다. 목상하기로 선정된 구절들을 목상한다. 목상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자신에게 적용한다.¹⁹

김철의 논의에서는 목상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사람이 선정한 구절을 목상하고 그에 따른 교훈을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는 주장에서 모순점이 발견된다.

앞서 제시한 큐티 관련 서적들과 논문들은 모두 성경을 목상 본문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분량은 큐티를 하는 당사자나 큐티 교재를 우위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성경의 화자이신 하나님보다 사람의 편의에 주목한 것이었고,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 보다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지엽적인 의미에 집중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통하는 교회 청년들의 경우, 평소 ‘일년일독 통독성경’으로 성경을 역사 순서에 따라 통독하고 있었는데, ‘마음과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고 그 부분을 목상하는 과정이 추가되어, 3년에 성경을 일독하면서 목상을 하면서 성경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너무 적은 분량으로 목상을 하면 전에 읽었던 부분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을 놓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년일독 통독성경’으로 성경통독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마음과 생각’

¹⁸ 김철, “기독교 목상이 대학생들의 주의력집중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3), 31.

¹⁹ Ibid.

으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묵상하여, 3년 동안 역사 순서에 따라 성경 전체를 묵상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과 범위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례연구법을 따르며, 이를 다시 통(Tong, 通)이란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례연구란 ‘일년일독 통독성경’으로 성경통독을 하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3년간 성경을 묵상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연구한 것을 말한다. 말씀을 묵상한 효과는 개인적인 경험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므로 조사 대상자들에게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고, 보고서 형태의 감상문을 받았다. 인터뷰에서는 기존의 큐티 교재로 묵상했던 경험과 ‘마음과 생각’으로 묵상했던 경험을 비교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을 묵상했을 때 개인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 주로 질문하였다. 감상문에서는 ‘마음과 생각’으로 묵상하면서 느끼고 생각한 점들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했다.

둘째, 조사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정보화하고 시각화하기 위해 인터뷰와 감상문을 토대로 한 10개의 주제를 담은 설문지를 제시하여 사례를 추출하였다. 설문지는 다음과 같다.

<표1> ‘마음과 생각’ 큐티 설문지

<p>다음은 ‘일년일독 통독성경’의 구성을 따른 ‘마음과 생각’으로 큐티를 해 온 분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서술하시기 바랍니다.</p>

질 문	답 변
1.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 할 때의 장점을 한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2. 기존의 큐티 교재로 큐티 할 때, 목상의 초점을 어디에 두었는지 서술하시오.	
3.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 할 때, 목상의 초점을 어디에 두었는지 서술하시오.	
4. ‘마음과 생각’ 의 어떤 점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하시오.	
5.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 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을 아는데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설명하시오.	
6.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를 함으로써 당신의 사고의 폭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설명하시오.	
7.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를 함으로써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하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하시오.	
8.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9.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를 하면서 당신의 가치관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10.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를 하면서 당신의 변화된 행동은 무엇입니까?	

셋째, 문헌연구를 위하여 큐티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기존

의 큐티 교재와 큐티 관련 서적 및 큐티에 관한 논문을 주요 참고 문헌으로 사용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通)이란 용어는 조병호가 사용한 방법으로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는 방법”이다.²⁰ 성경통독과 말씀 묵상에 통(通)의 방법을 사용했다.

연구의 범위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일년일독 통독성경’으로 성경통독을 하면서 3년간 ‘마음과 생각’으로 큐티를 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의 성경이 아닌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이용한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일년일독 통독성경’은 기존의 성경을 역사 순서에 따라 재배열한 성경인데, 이에 대해서는 II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둘째, 이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을 근거로 하는 교회 및 남구 방림동의 통하는 교회 청년들의 사례로 제한하며, 연구 기간은 “2013년~2015년까지”이다. 연구에 참여한 집단은 본 논문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필자의 청년 목회 현장에서 훈련 받은 리더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성경통독을 기본적으로 하게 하고, 큐티 교재 ‘마음과 생각’으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묵상하면서, 3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묵상의 방법이 효과적임을 증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총 연구 기간은 3년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큐티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하지 않는다. 대신 세계 큐

²⁰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2), 60.

티의 역사나 한국 큐티의 역사를 큐티의 유래와 정착 시기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하여 활용한다. 큐티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은 큐티의 목적과 당위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역사 순서에 따른 성경통독이 바탕이 되었을 때 큐티 분량의 변화와 이로 인해 연계 되는 유익에 대해 초점이 있다. 따라서 큐티의 목적과 당위성은 전제하고 논지를 전개함을 밝힌다.

넷째, 시판되고 있는 각 큐티 교재에서 제시하는 큐티의 방법적 차이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다만 전술한 큐티 교재에서 강조하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큐티 교재에 대한 분석 목적은 현재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큐티 교재들의 매일 묵상할 성경의 분량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큐티 교재의 묵상 방법이 더 좋고, 다른 큐티 교재의 묵상 방법은 좋지 않다는 식의 비교나 평가는 배제하였다.

다섯째, 이 논문은 큐티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는 큐티하는 절차가 묵상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지는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제안된 큐티의 절차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는 제시한다.

논문의 구조

이 논문은 크게 일곱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 I 장에서는 논문의 주제와 필요성, 선행연구,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논문의 구조에 대해 다룬다.

제 II 장에서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큐티의 방법으로써 ‘통성경큐티 방법론’을 제안한다. 이 방법론은 조병호의 통(通) 방법론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큐티를 하는 말씀 묵상의 방법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통(通) 방법론과 ‘마음과 생각’ 교재를 설명하고, 성경을

일독하면서 묵상하는데 3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또, 묵상의 고전인 렉시오 디비나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성경 읽기 방법 중 하나인 소리-생각 방법론을 소개한다.

제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제시한 통성경큐티 방법론을 따라 묵상을 할 때 얻는 효과로써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읽기’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통성경큐티 방법론에서 성경통독에 사용한 ‘일년일독 통독성경’은 기존 성경을 역사 순서에 따라 재배열한 성경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역사 순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르되, 동시대의 사건들은 묶어서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 순으로 성경을 통독하면 성경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따라 본문을 채택한 ‘마음과 생각’으로 큐티를 하기 때문에 묵상도 역사 순서에 따라 하게 되어 성경 전체에 나타나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의 실재를 네 가지의 요소로 설명한다. 네 가지의 요소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성경 읽기’,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에서 성경 읽기’, ‘사고의 폭이 확장되는 성경 읽기’, ‘하나의 큰 스토리로 성경 읽기’이다. 이들 각각에 대한 논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성경 읽기’에서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이며,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에서 성경 읽기’에서는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간단히 밝히고, 성경에 대한 역사적 배경지식이 성경 읽기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알아본다.

또한 ‘사고의 폭이 확장되는 성경 읽기’에서는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것이 사고의 지경을 넓혀 준다는 것을 보이고, 말씀 묵상을 통해 확장된 사고를 갖

는 것의 유익을 제시한다.

끝으로 ‘하나의 큰 스토리로 성경 읽기’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성경은 66 권이지만 이 이야기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안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는 데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제IV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의 효과’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첫째, 생각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둘째, 태도의 변화 측면에서 얻게 된 효과에 대해 다룬다.

제V장에서는 ‘일년일독 통독성경’에 의한 성경통독을 기반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3년간 성경을 일독하면서 큐티를 해 온 통하는 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소개한다.

제VI장에서는 V장의 프로젝트 참가자들에 대한 인터뷰, 감상문, 설문조사에서 얻은 자료들을 도표로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효용성을 판단한다.

제VII장에서는 ‘일년일독 통독성경’으로 성경통독을 하면서 3년간 ‘마음과 생각’으로 큐티를 한 결과 얻은 유익들을 정리하고 이로 인한 한국 교회의 발전적인 행보를 기대하며 본 연구의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제 II 장

통성경큐티 방법론

한국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즉 큐티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초청하여 그 뜻을 따라 살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 때, 큐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바른 성경통독이 전제되어야 하며 성경통독과 큐티는 병행되어야 한다. 큐티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깊게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영적 활동이므로 성경통독을 기반으로 묵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성경은 장르별로 분류되어 있어서 그대로 읽으면 시대나 역사를 하나로 연결시키기가 어렵다. 또한 요즘 나오는 연대기 순 성경도 성경을 연대별 흐름으로 파악하게 해 준다는 장점은 있으나 역사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게 되어 있다.

한편 조병호는 성도들의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도록 장르별로 정리된 기존의 성경을 역사 순으로 재배열하여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편찬했다. 그리고 성경을 각각의 분위기에 따라 일곱 개의 큰 기둥으로 나누어 7 트랙¹이라 하고, 성경 읽기의 기본이 되는 틀을 제시하였다. 그는 7 트랙을 20 개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분하여 20 마당²이라 하였으며, 나중에는 이를 40 개로 더 세분하여 40 줄기³로 표현하였

¹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6), 13.

² Ibid., 14.

³ Ibid., 15.

다. 즉, 7 개의 큰 분위기로 성경을 파악하고, 20 개의 마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40 개의 줄기로 성경 전체를 더 세세하게 보게 한 것이다.

조병호의 생각은 성경을 처음부터 자세히 보자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그림부터 보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큰 그림으로 이해한 다음, 더 세부적으로 보고, 그 세부를 이해하고 나서 더 깊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통성경 포물라⁴로 완성시켰다. 통성경 포물라는 7 트랙을 큰 그림으로 하고, 20 마당을 작은 그림, 40 줄기를 더 작은 그림으로 하여 성도들의 성경 읽기에 도움을 주며, 성경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는 방법이다.⁵

통성경 포물라는 조병호가 25년간 진행해 온 성경통독의 이론과 경험을 집대성한 것으로, 단계별로 성경 전체를 이해하도록 한 것이다.⁶ 이 때, 포물라는 영어로 공식이란 뜻이다. 즉, 통성경 포물라를 따라 성경통독을 하면 마치 공식에 대입하여 문제를 풀듯이 말씀이 읽히지며 성경을 통(通)으로 읽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성경 포물라를 주축으로 한 성경 읽기 방법을 ‘통(通) 방법론’이라 하며, 이것은 말씀 묵상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을 견지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앞으로 필자가 제시하게 될 큐티 방법은 ‘일년일독 통독성경’으로 성경통독을 하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3년 동안 성경 전체를 묵상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통성경큐티 방법론’이라고 하겠다. 이 방법은 첫째, 조병호의 통성경 포물라에 의한 통(通) 방법론에 토대를 두고, 둘째, 큐티 교재로 ‘마음과 생각’을 사용하며, 셋째, 성경 전체를 일독하면서 묵상하는 기간은 3년으로 잡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탐구하기 위해 서양의 묵상이라 할 수 있는 렉시오디비나와 새로운

⁴ 조병호 “새로운 성경이해, 이제는 ‘통성경’이다,” (기독신문 2014년 12월 8일).

⁵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3-15.

⁶ 조병호 “새로운 성경이해, 이제는 ‘통성경’이다.”

성경 읽기 방법인 소리-생각 방법론도 함께 다룬다.

통(通) 방법론(Tong methodology)⁷

통성경큐티 방법론의 토대는 통(通) 방법론이다. 먼저 통(通) 방법론의 기저가 되는 통(通)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通)

통(通)이란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을 인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지칭하는 새로운 단어로서, 하나의 사유 대상에 대한 두 가지 이상의 접근 경로를 섭렵하는 인식의 방법”이다.⁸ 다시 말해서 인식해야 하는 대상은 하나인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이 되는 사고체계인 것이다. 그리고 인식할 대상에 접근하는 방법들은 각각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서로 연관지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영역이나 방식, 관점이나 입장을 우선 그 각각으로 이해하고, 이어서 그러한 다름의 사이에서 그 관계성을 파악하고, 마침내 총체적 인식을 풍요롭게 하는 유익을 발생시키는 사고방식”을 통(通)이라 하는 것이다.⁹

통(通)의 의미는 ‘통(通)으로 본다’는 표현에서 더 구체화 되는데, 이것은 “실체의 속성과 본질에 집중하는 서양의 사고 방식 기반 위에, 본질적인 특징을 상황과 관계 안에서 찾아내는 동양의 사고 방식이 조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¹⁰ 즉,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각도로 바라보면서 대상의 여러 가지 특성을 분석하고,

⁷ 통(通) 방법론이란 조병호의 통(通)에 관한 연구를 총망라한 것으로, 통(通)신학, 성경통독, 통성경 포물라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도입하였다.

⁸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44.

⁹ Ibid., 45.

¹⁰ Ibid., 47.

그 특성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전체를 조망함으로써, 대상의 본질을 찾는 조화로운 사고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通)신학과 성경통독

전술한 ‘통(通)’ 과 ‘통(通)으로 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성경 읽기 방식에 적용시킨 기독교 경전 해석의 방법론이 통(通)신학이다.¹¹ 즉, 성경을 조명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을 총체적으로 수렴하여 진리를 더욱 온전히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통(通)신학인 것이다.¹² 이 때, 성경을 조명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음은 분석적 사고에 기초한 접근으로 볼 수 있고, 총체적으로 수렴하는 것은 종합적 사고에 의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¹³ 통(通)신학에 입각해서 성경을 읽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적이고 부분적으로 보는 방식과 총체적이고 전체적으로 보는 방식을 함께 아우르는 것인데, 전자는 서양의 경전 읽기 방식이고, 후자는 동양의 성경 읽기 방식이다.¹⁴ 따라서 대상을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관찰하는 방식과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조망하는 방식을 함께 사용하자는 것이다.

둘째, 통시적(通時: diachronic) 성경 읽기와 공시적(共時: synchronic) 성경 읽기를 통(通)으로 묶는 것인데, 통시란 연속되는 시간 흐름을 지칭한 말로서 시간의 세로축을 의미하고, 공시란 동일한 시간 영역을 지칭한 말로서 시간의 가로축

¹¹ Ibid., 48.

¹² Ibid.

¹³ 김귀곤, “브랜드확장평가의 동서양 문화적 차이에 대한 심리적 기저에 관한 연구: 제품범주정보의 간섭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의국어대학교, 2008), 18.

¹⁴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49.

을 의미한다.¹⁵ 따라서 통시와 공시의 관점을 모두 사용하여 성경을 읽자는 것이다.

셋째, 경전 중심의 성경 읽기 방식과 심정 중심의 성경 읽기 방식이 통(通)으로 가는 방식으로, 경전 중심의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을 이성적으로 대하고 심정 중심의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¹⁶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 이성과 감성을 모두 활용하자는 것이다.

즉, 통(通)신학에 입각한 성경 읽기란 위의 세 가지 방식에서 각각을 이루는 두 개의 방식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통(通)신학은 서로 다른 방식의 성경 읽기 방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론을 균형적인 입장에서 견지하는 것을 지칭한다.¹⁷

한편, 통시와 공시에 대해 좀더 살펴보면, 통시는 시대 순으로 펼친 연대기적 기법이며 공시는 동시대의 사건들을 함께 묶어서 보는 기법이다. 예컨대 바울의 전도 여행 순서에 따라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으면 통시가 된다. 바울의 사역이 쓰인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읽을 때, 비슷한 무렵에 기록된 바울의 서신서들을 함께 읽으면 공시이다. 통시와 공시가 함께 작용하는 것이 역사 순이다. 따라서 기존 성경을 역사 순으로 재배열한 ‘일년일독 통독성경’은 통시와 공시를 모두 포함한다.

일년일독 통독성경

조병호의 통(通)신학과 성경통독의 기반 위에 탄생된 ‘일년일독 통독성경’은 기존의 성경 배열과는 다르게 역사 순서에 따라 성경을 재배열하였다. 즉, 연대

¹⁵ Ibid.

¹⁶ Ibid.

¹⁷ Ibid., 50.

기적 순서에 따라 성경을 재배열하고, 동시대의 여러 성경들을 함께 묶으로써 통시적 및 공시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먼저 기존의 성경 분류 방식을 살펴보면, 그동안 구약성경 39권을 분류해온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 2)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 3) 시가서: 율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 4) 예언서: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 (소예언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훬,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¹⁸

율법서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 다섯 권을 의미한다. 율법서에는 창조 때부터 모세 시대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역사서란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들로 이루어진 책들이다. 역사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한 시대, 왕정 시대, 바벨론 및 페르시아 포로 생활 이후 귀환까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시가서는 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책들의 모음이다. 예언서는 ‘선지서’라고도 하며 선지자(예언자)들이 기록한 글을 말한다. 예언서들을 분량의 대소에 따라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눈다.¹⁹

신약성경 27권을 분류해온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 2) 역사서: 사도행전
- 3) 바울서신: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목회서신) 디모테전서, 디모테후서, 디도서
(일반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 4) 공동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 5) 예언서: 요한계시록²⁰

¹⁸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8.

¹⁹ Ibid.

²⁰ Ibid., 25-26.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복음서: Gospel - 복된 소식) 예수님에 관한 4권의 기록이기 때문에 사복음서라고도 부른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성령을 받고 전도활동을 시작한 제자들의 사역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초기 교회를 위해 쓴 바울의 편지들을 바울서신이라고 한다. 그 중 옥중서신은 A.D.61~63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하여 보낸 편지들이다. 목회서신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 디모데와 디도에 쓴 편지이다. 그리고 일반서신은 초기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여 쓰여진 바울의 서신들이다. 바울서신을 제외한 여덟 개의 편지들을 공동서신이라 부른다.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책으로 ‘묵시록’이라고도 한다.²¹

이와 같이 성경을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등으로 분류한 것이 장르별 분류 방식이다. 여기에서 구약과 신약을 재배열하여 구약을 3 개, 신약을 3 개, 구약과 신약의 중간을 1 개로 해서 총 7 개의 덩어리로 성경을 묶어낸 것이 7 트랙이다.

조병호가 성경을 7 트랙으로 나눈 이유는 분위기 때문이다. 먼저 구약 전체를 이끌고 가는 분위기는 ‘제사장 나라’ 이고, 신약 전체를 이끌고 가는 분위기는 ‘하나님 나라’ 이다.²² 그래서 구약의 3 개의 트랙은 ‘제사장 나라 set-up,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의 대립과 협력,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 이라는 분위기에 따라 ‘모세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으로 분류된다.²³ 신약의 3개의 트랙은 ‘하나님 나라 set-up,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 하는 분위기에 따라 ‘4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으로 나뉜다.²⁴ 구약과 신약 사이의 1개의 트랙은 ‘구약성경의 세계화와 유대 분파가 형성’ 되는 분위

²¹ Ibid.

²²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서울: 통독원, 2014), 212.

²³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30, 114, 192.

²⁴ Ibid., 254, 300, 362.

기를 가졌으며 ‘중간사 400년’ 이라고 한다.²⁵

따라서 7 트랙을 역사 순서대로 정리하면 ‘모세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4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 된다. 성경의 7 트랙과 ‘일년일독 통독성경’ 에 따른 성경 배열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일년일독 통독성경’ 에 따른 성경 배열

신. 구약	트랙 ²⁶	성경
구약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90편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왕정 500년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1~11장

²⁵ Ibid., 224.

²⁶ 조병호 박사가 성경을 나눈 7 트랙을 의미한다. 7 트랙 중 네 번째 트랙인 ‘중간사 400년’은 성경에는 없는 부분이므로, 7 트랙과 ‘일년일독 통독성경’에 따른 성경배열을 함께 나타낸 <표2>에는 중간사 400년이 빠져 있다.

		잠언 아가, 열왕기상11장, 전도서	
		욥기	
		시편	
		열왕기상12~22장, 열왕기하1~14장	
		아모스, 호세아, 요나	
		열왕기하15~20장	
		이사야, 미가	
		열왕기하21~23장,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열왕기하24~25장,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오바다	
		역대상, 역대하	
	페르시아 7권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신약	4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30년	사도행전1~19장 데살로니가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사도행전 20:1~6, 로마서 사도행전 20:7~28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공동서신 9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요한일·이·삼서, 요한계시록

사실, ‘모세5경’ 과 ‘4복음서’ 는 기존 성경분류 방식에서 각각 율법서와 복음서로 나와 있었다. 조병호는 율법서를 모세5경이라 하고, 복음서를 4복음서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역사서에 시가서와 예언서를 포함시켜서 ‘왕정 500년’ 이라고 했다. 시가서인 율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거의 솔로몬과 다윗이 지었고, 예언서에는 왕과 공존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이 담겨 있으므로 모두 역사서에 넣었다. 또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분위기가 달라진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는 예언서에서 따로 뽑아내어 ‘페르시아 7권’ 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모세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으로 구약의 세 기둥을 만들었다. 이는 기존의 장르별 분류에서 동류항을 찾아 더 큰 묶음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사 400년’ 을 포함시켰다. 실제로 구약의 끝 부분인 페르시아 7권까지는 페르시아가 나오고 신약의 첫 부분인 4복음서부터는 로마가 나오는데, 세계 5대 제국의 변천사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과 로마 제국 사이

에는 헬라 제국이 있었다.²⁷ 또한 구약의 말라기까지 등장하지 않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이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갑자기 등장하고 있다.²⁸ 즉,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게 되고 유대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의 분파들이 형성되는 시기가 있었던 것이다.²⁹ 바로 이 시기를 중간사 400년이라고 한다.

또, 신약에서 ‘4복음서’는 기존의 복음서를 그대로 둔 것이고, ‘사도행전 30년’은 신약의 역사서를 그대로 둔 것이다. 여기에 사도행전이 거의 바울 이야기이므로 바울 서신 전부를 사도행전 30년에 넣었다. 그리고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을 묶어서 ‘공동서신 9권’이라 했다.

결과적으로 7 트랙은 기존의 장르별 성경 분류에서 율법서와 복음서의 기둥은 흐트러뜨리지 않고 성경 전체를 7 개의 큰 덩어리로 간략하게 묶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하기 쉽다.

한편, ‘일년일독 통독성경’의 재배열은 40 줄기와 함께 나타낼 수 있다. 40 줄기는 7 트랙을 20 개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40 개의 주제로 더 세분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역사, 족장사, 입애굽과 민족, 출애굽과 제국, 세계 선교의 꿈-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만나세대, 만나학교 졸업, 약속의 땅 입성,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교육의 성공 사례, 미스바세대, 왕정의 시작, 하나님의 종 다윗, 솔로몬과 시가서, 남북 분열 왕조,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멸망, 잠간의 징계, 포로민 설득, 제국 변동의 밑그림, 성전 재건, 성벽 재건, 고백과 침묵, 헬라 제국과 중간사, 로마 제국과 중간사, 예수님 탄생, 공생애 3년,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 승리-하나님 나라, 열리는 제자 시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기독교론과 기적의 편지,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선한 싸움을

²⁷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225.

²⁸ Ibid., 224.

²⁹ Ibid.

위한 편지, 최후 승리의 노래³⁰

먼저 구약성경의 재배열을 40 줄기에 맞춰 나타내면 <표5>와 같이 정리된다. 표에서 왼쪽 열이 40 줄기이며, 이것은 실제 40 줄기의 내용을 압축한 것이다.

<표3> 구약성경의 재배열³¹

구약 성경통독 순서	
원역사와 족장시대	창세기 1~11장 → 창세기 12~50장
모세와 출애굽 시대 ①	출애굽기 → 레위기
모세와 출애굽 시대 ②	민수기 → 신명기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	여호수아 → 사사기 → 룻기
왕정시대 ① 통일왕국 시대 1	사무엘상 → (역대상 1~10장) → 사무엘하/ (역대상 11~29장) → 열왕기상 1~2장
왕정시대 ② 통일왕국 시대 2	열왕기상 3~11장/(역대하 1~9장) → 잠언 → 아가 → 전도서 → 욥기 → 시편
왕정시대 ③ 분열왕국 시대	열왕기상 12~22장/열왕기하 1~14장(역대하 10~25장) → 아모스 → 호세아 → 요나 → 열 왕기하 15~20장/(역대하 26~32장) → 이사야 → 미가
왕정시대 ④ 남유다 퇴락기	열왕기하 21~23장/(역대하 33~35장) → 스바 냐 → 하박국 → 나훔 → 요엘 → 열왕기하

³⁰ Ibid., 15.

³¹ Ibid., 23.

	24~25장/(역대하 36장) → 예레미야 → 예레미야애가 → 오바다
바벨론 포로 시대	에스겔 → 다니엘
페르시아 시대	에스라 1~4장 → 학개 → 스가랴 → 에스라 5~6장 → 에스더 → 에스라 7~10장 → 느헤미야 → 말라기

‘일년일독 통독성경’은 성경을 시대별로 나누고 동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나가도록 한다. 먼저 구약성경은 출애굽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를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 조병호에 의하면 출애굽 시대 이전을 ‘원역사와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창세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 다음 출애굽 시대는 ‘모세와 출애굽 시대’라고 하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모세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까지 읽게 된다. 출애굽 시대 이후는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라고 한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왕정을 요구하기 이전까지의 내용이므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이어서 읽는다.

그리고 ‘왕정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르는 통일 왕국부터 르호보암 이후의 분열 왕국까지 역사 순서대로 읽게 된다. 먼저,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시기에는 사무엘상, 역대상 1~10장, 사무엘하, 역대상 11~29장, 열왕기상 1~2장을 읽는데, 사울의 이야기인 사무엘상과 역대상 전반부를 함께 읽고, 다윗의 이야기인 사무엘하와 역대상 후반부, 그리고 열왕기상 전반부를 함께 읽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솔로몬은 지혜의 글들을 많이 남겼으므로 시가서인 잠언, 전도서 등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된다. 즉, 열왕기상 3~11장, 역대하 1~9장, 잠언, 아가, 전도서, 율기, 시편의 순서대로 읽으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이 난다. 이후는 분열 왕국 이

야기로서 열왕기와 역대기, 그리고 예언서들을 함께 읽도록 구성되어 있다. 열왕기상 12~22장/열왕기하 1~14장(역대하 10~25장), 아모스, 호세아, 요나, 열왕기하 15~20장/(역대하 26~32장), 이사야, 미가의 순서이다. 실제 ‘일년일독 통독성경’의 순서는 위의 표와 같이 왕정시대를 다 읽고 난 후 역대상과 역대하를 읽도록 하고 있다. 즉, 왕정 시대에서 괄호로 표시한 역대상과 역대하의 읽는 순서를 오바다의 뒤로 배치하였다.³²

마지막은 포로 시대로서 ‘바벨론 포로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기까지가 포함된다. 먼저 바벨론 포로 시대는 에스겔과 다니엘의 순서로 읽는다. 다음 페르시아 시대는 에스라 1~4장, 학개, 스가랴, 에스라 5~6장, 에스더, 에스라 7~10장, 느헤미야, 말라기를 순서대로 읽는다.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기의 초반에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했고, 중반에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로 있었고, 후반에 느헤미야가 활동했기 때문에 에스라의 중간 중간에 학개, 스가랴, 에스더가 배치되어 있다.

신약성경의 재배열은 40 줄기에 맞춰 나타내면 아래의 <표4>와 같다. 표의 왼쪽 열은 40 줄기를 나타내며, <표3>과 마찬가지로 40 줄기의 내용을 압축한 것이다.

<표4> 신약성경의 재배열³³

신약 성경통독 순서

³² 위의 표에서는 동시대의 성경을 함께 묶어 두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³³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28.

예수님의 사역 ①	마태복음
예수님의 사역 ②	마가복음
예수님의 사역 ③	누가복음
예수님의 사역 ④	요한복음
교회의 시작과 열두 사도들의 사역	사도행전 1~12장
사도바울의 사역과 바울서신 ①	사도행전 13장~18:22 → 데살로니가전서 → 데살로니가후서 → 갈라디아서 → 사도행전 18:23~19장 → 고린도전서 → 고린도후서
사도바울의 사역과 바울서신 ②	사도행전 20:1~6절 → 로마서 → 사도행전 20:7~28장 → 에베소서 → 빌립보서 → 골로새서 → 빌레몬서 → 디모데전서 → 디도서 → 디모데후서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 야고보서 → 베드로전서 → 베드로후서 → 유다서 → 요한일서 → 요한이서 → 요한삼서 →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은 예수님, 열두 사도,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순서대로 읽으면 된다. 두 번째 부분은 ‘교회의 시작과 열두 사도들의 사역’이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의 이야기에 해당되므로 사도행전 1~12장을 읽는다. 세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의 사역과 바울서신’이다. 이 부분은 바울의 전도여행과 여행 도중 그가 교회들에 보낸 서신들로 구성된다. 사도행전 13장~18:22, 데살로니가전·

후서,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18:23~19장, 고린도전·후서를 읽고 그 후에, 사도행전 20:1~6절, 로마서, 사도행전 20:7~28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테전서, 디도서, 디모테후서를 읽는다. 바울의 전도여행 경로를 따라가면서 전도여행 도중에 바울이 교회들에 보낸 서신서를 순서대로 읽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 부분은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이라 한다. 사도들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공동서신부터 사도 요한이 밧모 섬에서 하나님께 받은 환상인 요한계시록까지이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요한일·이·삼서, 요한계시록의 순서로 읽는다.

통성경 포물라

지금까지 통(通)의 개념과 통(通)으로 본다는 사고방식을 알아보고, 이러한 관점을 총망라한 경전 해석 방법이 통(通)신학임을 밝혔다. 또한 통(通)신학에 근거한 성경통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식이 통성경 포물라라고 했다. 통성경 포물라는 앞서 제시한 7 트랙, 20 마당, 40 줄기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틀을 구성한 것으로서, 성경을 7 개 트랙(track)을 바탕으로 7 개의 스텝(그 순간, 영성, 나라, 마음, 줄기, 기도, 전도)으로 정리한 것이다.³⁴

7 개 트랙

성경을 역사 순으로 재배열하고, 이를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 7 개의 트랙으로 나누면 구약을 3개의 트랙(모세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으로, 신약을 3개의 트랙(4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으로, 구약과 신약의 사이를 1개

³⁴ Ibid., 14.

의 트랙(중간사 400년)으로 나눌 수 있다.³⁵ 각 트랙에 해당되는 성경과 각각의 분위기는 <표5>와 같다.

<표5> 성경의 7 개 트랙과 분위기³⁶

성경	7 개 트랙	분위기
구약	모세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모세 시대에 형성되는 제사장 나라 set-up 분위기
	왕정 500년 (역사서와 예언서)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협력하는 분위기
	페르시아 7권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가는 분위기
중간사	중간사 400년	하나님의 침묵 속에 구약성경의 체계화와 유대 분파가 형성되는 분위기
신약	4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set-up 분위기

³⁵ Ibid., 13.

³⁶ Ibid.

	사도행전 30년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
	공동서신 9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일·이·삼서, 요한계시록)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분위기

7 개의 스텝

성경은 7 개 트랙의 바탕에서 다시 7 개의 스텝으로 나뉘볼 수 있다. 7 개 스텝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6> 성경의 7 개의 스텝³⁷

스텝	주제
Pre-Step1	그 순간 (‘다 이루었다’ &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이야기)
Pre-Step2	성경과 영성 (성경을 통한 영성 이야기)
Step1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7 개 질문 중심의 나라 이야기)
Step2	하나님 마음

³⁷ Ibid., 14-15.

	(66권 경전을 통한 하나님의 심정 이야기)
Step3	성경 즐기기 (40 개의 성경 즐기기 이야기)
Step4	성경을 통한 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이야기)
Step5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 (전도 이야기)

조병호가 7 개 트랙과 7 개의 스텝으로 성경을 읽는 전체적인 틀을 구성했다면, 본 연구는 이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에 초점을 맞춰 ‘7 트랙, 20 마당, 40 즐기기’ 를 중심으로 하는 성경통독에 집중한다. 이 세 가지는 조병호의 7 개 트랙을 포함하며, 7 개의 스텝 중에서는 Step2, 3(마음, 즐기기)에 해당된다. 여기에 Step1(나라)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개념을 접근 방법의 바탕으로 삼았다. 즉,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큰 테두리 안에서 성경 전체를 7 트랙으로 보고, 이를 20 개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다시 이를 40 개의 즐기기까지 세분화시켜 성경을 읽어내고자 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구약과 신약을 통(通)으로 꿰뚫는 핵심 개념으로, 7 개 트랙과 7 개의 스텝의 바탕이 된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 한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이다. 이후 제사장 나라는 모든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과 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조병호에 따르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는 나라의 구성원들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힘을 합해 민족적으로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과 세상 모든 나라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³⁸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자 그 나라를 더 큰 나라로 수렴시키시는데 이때의 더 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다.³⁹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계획, 선발, 훈련, 재선발, 재훈련, 더 큰 계획’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계획’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에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모든 민족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갖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발’하시는데, 그들은 장차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 제사장 나라의 국민이 된다.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하나님께서는 첫 요소인 국민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보이는 영토인 가나안을 제시하셨다. 그리고 주권을 가르치시기 위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다. 이로써 ‘훈련’이 시작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인 광야 생활 40년이 이에 해당된다. 훈련 내용은 제사장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땅을 향해 나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땅의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제사장 나라의 구성원으로 훈련되어 가던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이 주어지고, 그곳에서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겪으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잇고 살게 되면서 훈련은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다.

³⁸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69.

³⁹ Ibid., 16.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가시기 위해 ‘재선발’을 시작 하셨다. 이 때 선발된 사람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들이다. 하나님께서는 혼란 실패의 원인을 제공했던 땅을 반환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재훈련’을 시키셨다. 포로들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재확인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무장되어 갔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시고 무너진 제사장 나라를 일으키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보이는 땅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으로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본질을 잃은 채 형식만 가득하게 변질되어 갔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라기 이후 400년이 지나자 제사장 나라를 종결 지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맡았던 중보자의 사명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성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되었다는 사실을 조병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친히 제물’이 되신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친히 제사를 집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구나 제사장의 제사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⁴⁰

예수님께선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올라가시고 모든 민족을 위한 중보자로서 계속해서 일하시게 되었다. 그리고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보이는 땅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⁴⁰ Ibid., 16-17.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⁴¹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수렴된 것이다.⁴²

7 트랙, 20 마당, 40 줄기

이제 7 트랙과 20 마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40 줄기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것에 초점이 있으므로 40 줄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는다. 대신, 7 트랙, 20 마당, 40 줄기를 하나의 표로 제시하여 세 가지의 구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표7>을 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된다.

<표7> 7 트랙, 20 마당, 40 줄기

7 트랙	20 마당 ⁴³	40 줄기 ⁴⁴
1. 모세5경	1. 하나님의 마음	1. 원역사
		2. 족장사
		3. 입애굽과 민족
	2. 열방을 향한 꿈	4. 출애굽과 제국
		5. 세계 선교의 꿈 - 제사장 나라
		6.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⁴¹ 하나님 나라는 분명한 경계와 정해진 법령이 있는 지리적 영역이 아니며 그리스도께 주권이 있는 일련의 관계이다. 레너드 스윗, *테블릿에서 테이블로* (서울: 예수전도단, 2014), 76.

⁴²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16.

⁴³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24, 28-29.

⁴⁴ Ibid.

	3. 만나세대	7. 만나세대
		8. 만나학교 졸업
	4. 신앙계승	9. 약속의 땅 입성
		10.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11. 교육의 성공 사례
	2. 왕정500년	5. 천년모범
13. 왕정의 시작		
14. 하나님의 종 다윗		
6. 마음과 지혜		15. 솔로몬과 시가서
7. 사랑의 줄 사명의 줄		16. 남북 분열 왕조
		17. 북이스라엘 멸망
8. 절망 앞에 선 희망		18. 남유다 멸망
		19. 잠깐의 징계
3. 페르시아7권	9. 징계, 희망의 디딤돌	20. 포로민 설득
		21. 제국 변동의 밑그림
	10. 재건공동체	22. 성전 재건
		23. 성벽 재건
24. 고백과 침묵		
4. 중간사400년	11.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25. 헬라 제국과 중간사
		26. 로마 제국과 중간사
5. 4복음서	12. 기쁨을 위한 탄생	27. 예수님 탄생

	13. 한 영혼 사랑	28. 공생애 3년
	14. 용서를 향한 열정	29. 마지막 일주일
	15.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30. 십자가 승리 - 하나님 나라
6. 사도행전30년	16. 열리는 제자 시대	31. 열리는 제자 시대
	17.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32. 바울의 1차 전도여행
		33.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4. 바울의 3차 전도여행
	18.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35.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36.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37. 기독교론과 기적의 편지
38.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7. 공동서신9권	19.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39.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20.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40. 최후 승리의 노래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인 7 트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약은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으로 나뉜다.

첫 번째, 모세 5경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모세 시대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 set-up’ 분위기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

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든 민족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한 것이다.⁴⁵

제사장 나라의 기본 set-up은 모세5경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한 민족, 한 나라를 세우시며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모든 민족과 교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경영의 시작을 모세5경이라 하였다.⁴⁶

두 번째, 왕정 500년은 ‘왕과 선지자들의 대립과 협력’의 분위기이다.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원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직접 성경(모세5경)을 가르치게 하셨던 것이다.⁴⁷ 그런데 이 왕정 500년간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과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겹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서와 예언서를 함께 통으로 읽어야 한다.⁴⁸

하나님께서서는 왕을 두지 않으셨고 제사장 나라에서 왕으로서 계셨다. 그러나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허락하셨고, 왕정 500년 동안 왕이 제사장 나라에 가까이 가지 못할 때는 선지자를 통해 깨닫게 하셨다.⁴⁹

세 번째, 페르시아 7권은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를 향한 기대’의 분위기이다.⁵⁰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는 구약성경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과 깊이 관련된 일곱 권의 책이다. 남유다 백성은 1·2·3차에 걸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70년을 살았다. 그러던 중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의 주인으로 역사에 등장한 것이다. 그때에 모두 자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이다.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의 귀환도

⁴⁵ 조병호,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통독원, 2014), 31.

⁴⁶ Ibid.

⁴⁷ Ibid., 48.

⁴⁸ Ibid., 49-50.

⁴⁹ Ibid., 48-50.

⁵⁰ Ibid., 83.

1·2·3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이때의 기록들이 바로 페르시아 일곱 권에 해당한다.⁵¹

하나님의 부름과 계획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벗어나는 이스라엘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어가려고 하셨으나, 그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자 남유다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깨닫는 훈련의 시간을 주셨다.⁵² 페르시아 7권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데 초점이 있다. 즉, 바벨론에서 훈련 받은 포로들이 귀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심 이야기이다. 이후, 구약의 말라기 때부터 신약의 마태복음 이전까지는 세계 제국의 변천사에 해당하며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⁵³

신약은 4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으로 나뉜다.

첫째, 4복음서는 ‘하나님 나라 set-up’의 분위기이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등장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4복음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들어서까지 자세하게 가르쳤다.⁵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나 이스라엘의 마음이 식어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다. 제사장 나라가 더 큰 하나님 나라에 수렴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게 하셨다.⁵⁵

두 번째, 사도행전 30년은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 되는 분위기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사건에서부터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나기 전까지 30년간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세력과 완악한 유대인들이 기독교 전파에 대

⁵¹ Ibid., 82.

⁵² Ibid.

⁵³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225.

⁵⁴ 조병호,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104.

⁵⁵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16.

해 지독하게 방해할 일삼은 기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⁵⁶

사도행전 30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퍼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다. 제자들은 성전시대가 끝났고 교회, 즉, 제자시대가 도래했음을 전파했지만 대체사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찢어진 휘장을 다시 봉합하고 있었다.⁵⁷

세 번째, 공동서신 9권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 해 가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발생은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방해에 로마 제국의 박해가 더해진 심각한 상황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때 발생한 영지주의를 비롯한 여러 이단에 빠지는 등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 공동서신 9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당시 초기 교회 지도자들의 편지들을 일컫는다.⁵⁸

공동서신 9권은 로마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이야기이다. 제국주의를 표방하던 로마가 성도들에 대한 탄압의 수위를 높이자 배교자들이 생겨났고, 교회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경계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했다.⁵⁹

다음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기 위한 20 마당을 주제별로 살펴본다.

1마당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이다. 창세기는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민족의 기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관계를 묘사함으로써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무대를 설정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순종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토대가 되었다.⁶⁰

⁵⁶ 조병호,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116.

⁵⁷ Ibid.

⁵⁸ Ibid., 135.

⁵⁹ Ibid.

⁶⁰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2), 14.

1마당의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척 좋아하신 하나님의 마음, 아담의 범죄 이후 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 노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⁶¹

2마당의 주제는 ‘열방을 향한 꿈’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한 개인에 대한 부르심으로 이루어져 갔다면,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부르심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지상에 드러낼 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시민으로 탄생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⁶²

이로써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꿈이 펼쳐지게 된다.⁶³

3마당의 주제는 ‘만나세대’이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받은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구체적인 생활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40년간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꼼꼼히 교육받는다.⁶⁴

조병호는 이렇게 성장한 세대를 ‘만나세대’라고 불렀으며, 그들의 부모세대인 ‘출애굽세대’와 구별하였다.⁶⁵ 실제로 출애굽세대는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만나세대는 용감하게 요단강의 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4마당의 주제는 ‘신앙계승’이다. 여호수아서에는 ‘만나세대’들이 땅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해내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그들의 후손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에게로 눈을 돌리고 만다. 사사기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구원, 그 사랑을 저버리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반복된다.⁶⁶

⁶¹ Ibid.

⁶² Ibid., 54.

⁶³ Ibid.

⁶⁴ Ibid., 96.

⁶⁵ Ibid.

⁶⁶ Ibid., 118.

이것은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이다. 만나세대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인 만나세대가 죽자 신앙을 버렸고 하나님의 길에서 빠르게 멀어져갔다.

5마당의 주제는 ‘천년모범’이다. 사무엘은 암흑기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지만, 그가 늙자 백성들은 왕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준비하셨다. 백성들을 권력의 소유물로 여긴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공과 의로 나라를 다스리며 천년 역사의 모범을 이루어갔다.⁶⁷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기까지 사울로부터 쫓겨 다니는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그의 모범적인 신앙은 열왕기상·하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다윗의 길을 따른 자들과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자들로 나누는 기준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신앙의 표상이 되었다.

6마당의 주제는 ‘마음과 지혜’이다. 다윗 왕국을 물려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선물 받은 솔로몬은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옮겨버리게 되면서 인생의 유한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진정한 지혜와 사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⁶⁸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지녔을 때 받은 지혜와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헛됨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얻은 지혜는 분명 달랐다. 이는 지혜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다.⁶⁹

7마당의 주제는 ‘사랑의 줄 사명의 줄’이다. 솔로몬의 정치적, 신앙적 실패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고, 그 뒤를 이은 왕조들은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늪으로 빠져 들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당신의 간절한 마음을

⁶⁷ Ibid., 154.

⁶⁸ Ibid., 204.

⁶⁹ Ibid.

표현하셨다. 이스라엘에게 사랑의 줄을 보내며, 그들이 그 줄을 사명의 줄로 붙잡기를 바라신 것이다.⁷⁰

선지자들은 왕이 제사장 나라를 추구하면 왕과 협력했고, 왕이 제사장 나라를 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 대립했다.⁷¹ 전자는 다윗의 길로, 후자는 여로보암의 길로 일컫는다.

8마당의 주제는 ‘절망 앞에 선 희망’이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 남유다도 급격히 쇠퇴해갔다. 이 때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그들을 희망의 씨앗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깨달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신뢰하며, 민족의 회복과 희망을 노래한다.⁷²

그는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포로로 남겨진 자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시는 하나님의 모순을 ‘절망 앞에 선 희망’으로 표현했다.

9마당의 주제는 ‘징계, 희망의 디딤돌’이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고, 제국 변천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 한편, 하나님의 뜻과 심판을 선언할 파수꾼으로 부름 받은 에스겔은 곧 도래할 새 예루살렘의 찬란한 미래를 선포한다.⁷³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희망을 바라본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이었다. 다니엘은 정치가로,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희망의 디딤돌을 놓았다.

10마당의 주제는 ‘재건공동체’이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은 학개와 스가라의 격려에 힘입어 성전을 재건했다. 에스라는 공동체의 내적 부흥과 정화 작업을 추진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천오백 년 동안 이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

⁷⁰ Ibid., 238.

⁷¹ Ibid.

⁷² Ibid., 286.

⁷³ Ibid., 318.

해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만다.⁷⁴

한편 8마당에서 보였던 희망의 증거들인 바벨론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들을 ‘재건공동체’라고 부른다.⁷⁵ 처음에는 공동체의 정체성대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와 절기도 회복시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남게 되었는데, 이 때 선포된 말씀이 말라기이다.⁷⁶

11마당의 주제는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이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냉랭하게 반문하였다. 하나님은 그 쓸쓸한 반응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4백여 년간 침묵하셨다.⁷⁷

실제로 11마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가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의 4백여 년간 제국 변동의 큰 흐름이 있었으며, 구약의 끝에는 세계의 패권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지만 신약의 시작 부분에는 그 힘이 로마 제국으로 옮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⁷⁸

12마당의 주제는 ‘기쁨을 위한 탄생’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윗이라는 천 년의 징검다리를 건너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큰 빛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비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참 기쁨을 위한 탄생이었다.⁷⁹

⁷⁴ Ibid., 336.

⁷⁵ Ibid.

⁷⁶ Ibid.

⁷⁷ Ibid., 370.

⁷⁸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225.

⁷⁹ 조병호, *성경통독*, 396.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모두 다뤄지고 있지만,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번째에 해당하고 예수님의 탄생이 신약의 시작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12마당에 해당되는 마태복음의 주제를 ‘기쁨을 위한 탄생’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13마당의 주제는 ‘한 영혼 사랑’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들판을 노니는 양들보다도, 더 나아가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말씀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 시공을 초월하여 능력을 베풀기도 하셨지만, 직접 예수님의 손을 사용해서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치유하셨다.⁸⁰

13마당에 해당되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다. 즉, 손을 내미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림으로써,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였다.⁸¹

14마당의 주제는 ‘용서를 향한 열정’이다. 5백여 년 전에 준비하신대로 예수님은 겹손의 상징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들을 더 높은 설득의 길로 이끌고자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한 열정⁸²을 키워가셨다.⁸³

14마당에 해당하는 누가복음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예수님의 열정이었다.

15마당의 주제는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처벌과 용서, 계약과 관계의 신비가 어우러진 장소이다. 차갑게 얼어버린 인생들의 영혼에 봄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고자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한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광과 평화의 세계로 초대하신다.⁸⁴

⁸⁰ Ibid., 428.

⁸¹ Ibid.

⁸² 그리스도의 수난을 뜻하는 ‘The Passion’에서 ‘passion’은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⁸³ 조병호, *성경통독*, 460.

⁸⁴ Ibid., 484.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이었다.⁸⁵ 이러한 영광과 평화는 예수님 당시로 끝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리게 되었다.

16마당의 주제는 ‘열리는 제자 시대’이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편만해지는 데에는 사도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스테반과 빌립과 같은 일곱 일꾼들의 헌신으로 복음이 사마리아로 퍼지고, 사도 바울에 의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갔다. 예수님의 유언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은 제자들에 의해 본격적인 세계 선교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⁸⁶

이 때의 제자는 예수님 당시의 열두 제자나 70인 제자의 범위를 넘어선다.⁸⁷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가 가르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모두 제자였다.

17마당의 주제는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이다. 고넬료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전도를 시작한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모든 경계를 넘어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초석이 놓이고, 바울의 2·3차 전도여행을 통해, 소아시아를 넘어 마케도냐까지 복음이 확장되었다.⁸⁸

이 것은 유대의 기독교인들에게까지 팽배해 있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허용된 것이라는 지나친 선민의식⁸⁹을 깨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따라서 로마의 백부장 고클, 이방인인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원로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세계 선교의 발걸음이 더욱 가

⁸⁵ 누가복음 2:14.

⁸⁶ 조병호, *성경통독*, 506.

⁸⁷ 마태복음 28:19-20.

⁸⁸ 조병호, *성경통독*, 528.

⁸⁹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하심을 근거로 히브리 백성들을 선택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민(聖民)으로 택하여 주셨다. 백현철, “신앙의 대 잇기를 통한 교회 사역 활성화 방안 연구: 성산교회 신앙유산 서약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2), 21.

속화되었다.⁹⁰

18마당의 주제는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이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만 유대인들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 놓인다. 결국 그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하여 로마 감옥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지난 날 눈물로 세운 교회와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바울은 편지에서 준비된 면류관을 바라보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부탁을 남기고 있다.⁹¹

다시 말해서,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 끝에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 복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

19마당의 주제는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이다. 교회가 큰 시련을 당하여, 내부에서는 기독교의 진리를 혼란케 하는 거짓 교사들이 출현하고, 외부에서는 교회를 향해 모진 박해가 가해졌다. 공동서신으로 불리는 이 편지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순교까지 당하는 일에 대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열어 준다.⁹²

이 편지들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행해졌던 온갖 어려움에도 인내하며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도록 격려하는 글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⁹³

20마당의 주제는 ‘미리 건네 받은 승리의 노래’이다.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 박해는 극심하였고, 지속적이었다. 요한계시록에는 로마 제국의 칼날 앞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이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⁹⁴

⁹⁰ 조병호, *성경통독*, 528.

⁹¹ Ibid., 570.

⁹² Ibid., 600.

⁹³ Ibid.

⁹⁴ Ibid., 624.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외하고 모두 성취되었다. 따라서 20마당에서 말하는 신앙인의 승리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마지막 예언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의 노래가 되고 있다.

통(通) 방법론

본 절에서는 통(通) 신학과 성경통독을 거쳐 통성경 포물라로 집약되는 ‘통(通) 방법론’을 소개한다. 통(通) 방법론이란 성경을 통(通)으로 보는 것이다. 성경에서 통(通)으로 보아야 할 것은 ‘시간, 공간, 인간’ 이고 ‘개인, 가정, 나라’이며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 이다.⁹⁵

시간, 공간, 인간을 통(通)으로 보다⁹⁶

조병호는 “성경 속의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과 5,000여 명의 인간을 파편처럼 별개로 보지 않고 그 시간,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지 통(通)으로 보아야 한다.”⁹⁷ 고 했다. 즉, 성경에는 많은 시간, 공간, 인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을 따로 떼어보지 않고 총체적으로 봐야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간 이야기가 나온다.⁹⁸ 이 때,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였고 이삭은 그의 독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⁹⁵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1.

⁹⁶ Ibid.

⁹⁷ Ibid.

⁹⁸ 창세기 22:1-19.

테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때까지도 지켜보고만 계셨다. 또 이삭은 청소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 것을 알면서도 반항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빼어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한 그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을 믿으셨다. 3일 길의 시간, 모리아 산까지 가는 순종의 여정,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관계성까지 하나님이 다 보셨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다급하게 그를 부르신 것이다. 그제야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겠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시간, 공간, 인간을 통(通)으로 볼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통하는 사이가 되어, 2,000년 후에 자신의 독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⁹⁹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시간만 봐서도 안 되고 공간에만 의미를 두어서도 안 된다. 시간, 인간, 공간을 통(通)으로 보아야 한다.

개인, 가정, 나라를 통(通)으로 보다¹⁰⁰

조병호는 “성경 속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개인·가정·나라 이야기를 함께 통(通)으로 보아야 한다.”¹⁰¹ 고 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각각 개인이지만 가정이 있었고 또한 한 나라에 속해 있었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한 개인이며 가정과 나라에 소속되어있다. 따라서 성경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기 위해서는 성경 속의 각 개인

⁹⁹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43.

¹⁰⁰ Ibid., 12.

¹⁰¹ Ibid.

들과 그들의 가정 및 나라를 통(通)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¹⁰²는 예수님 개인과 가정, 나라를 통(通)으로 볼 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병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 개인의 이야기이다.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였고 이것은 예수님 가정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에 로마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린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라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¹⁰³

또 다른 예로 모세의 이야기를 들고 있다.¹⁰⁴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갈대 상자를 탄 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이다. 또한 아버지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어머니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고 누나는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망을 보는 것은 모세의 가족 이야기이다. 이렇게 가족들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태워 나일 강에 떠내려 보낸 이유는 그의 가정이 속한 히브리 민족이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었다.¹⁰⁵

따라서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탄 것에 대해서 모세 개인과 그의 가정, 그리고 그가 속한 나라를 통(通)으로 보아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보다¹⁰⁶

성경에서 구약은 제사장 나라 이야기이고, 신약은 제사장 나라를 담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다.¹⁰⁷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로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며 죄를 용서받게 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¹⁰² 누가복음 2:1-7

¹⁰³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2.

¹⁰⁴ 출애굽기 2:1-10.

¹⁰⁵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2.

¹⁰⁶ Ibid.

¹⁰⁷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212.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세계의 5대 제국을 들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위해 사용하신 5개의 제국은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으로서, <이사야>는 앗수르 제국을,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을,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¹⁰⁸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 중에 5대 제국을 사용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보아야 한다.¹⁰⁹

그러므로 시간, 공간, 인간을 통(通)으로, 개인, 가정, 나라를 통(通)으로,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분위기가 나타나며,¹¹⁰ 이것이 통(通) 방법론에 따른 성경 읽기의 핵심이다. 통(通) 방법론에 의한 성경통독이 전제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큐티가 가능해진다.

마음과 생각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 수 있다. 이같은 생각이 큐티의 근원이 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다양한 큐티 교재로 성도들의 목상을 돕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앞서 제시했던 통(通) 방법론에 입각한 성경통독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성경통독이 기본이 된 성도들이 매일 큐티를 하면서도 영적

¹⁰⁸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2-13.

¹⁰⁹ Ibid.

¹¹⁰ Ibid.

전쟁에서 고전(苦戰)을 면치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큐티 교재들은 분량과 방법 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분량 면에서 절 단위로 끊어진 짧은 본문을 하루에 읽도록 한다. 그리고 방법 면에서 본문의 내용 중 자신에게 와 닿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읽고 계속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분량과 방법의 위험성은 첫째,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어렵게 하고, 둘째, 묵상을 하는 개인의 생각이나 큐티 교재의 메디테이션만 반복해서 생각하게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본 연구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경통독 훈련을 계속 해 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으며¹¹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¹¹² 있지만, 어떻게 읽어야 효과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지 고민하던 중에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접하게 되었다. 이 책은 장르별도 아니고 연대별도 아니고 역사 순서대로 재배열된 성경이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의 전체 즉, 성경의 숲을 볼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성경통독이 재미있게 되었고 속도도 붙게 되었다. 이 때, ‘일년일독 통독성경’에 입각한 ‘마음과 생각’을 큐티 교재로 채택하여 3년 간 말씀 묵상을 병행하였는데, 성경 전체의 숲에서 나무 하나하나까지 보게 되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은 ‘일년일독 통독성경’의 순서에 따라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성경통독을 통해 쌓은 성경의 흐름을 바탕으로 말씀을 묵상하기에 최적화된 분량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 전체를 숲이라고 했을 때 통독은 ‘숲 보기’가 되고 묵상은 ‘나무 보기’가 되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는 말씀을 보면서도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 찾았는데, 이제는 말씀

¹¹¹ 히브리서 4:12.

¹¹² 디모데후서 3:16.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나 열정이 생기게 되었다. ‘일년일독 통독성경’으로 성경통독을 하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체이다.

‘마음과 생각’ 활용법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기반으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구성한 큐티 교재가 ‘마음과 생각’이다. 이 책은 성경을 역사적인 흐름에 맞추어 제시하고 성경의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살필 수 있는 새로운 묵상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¹¹³ 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가도록 구성되어 있다. 분량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되어 있어 교재를 따라 계속 큐티를 했을 때 3년이면 성경 전체를 1독 할 수 있다. 여기서 묵상은 ‘통(通)’으로 보는 방식을 따른다.

교재의 효용성을 살피려면 교재의 활용법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저자인 조병호가 제시한 ‘마음과 생각’의 활용법은 다음과 같다.

하루에 1장씩 말씀을 통독합니다. 본문의 ‘숲’, 즉 전체 흐름을 먼저 살피겠다는 마음으로 한 번 읽고, 더 깊은 묵상을 위해 한두 번 정도 더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때 거기서’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대, 그 장소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당대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 봅시다. 그때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¹¹⁴

‘마음과 생각’의 구성

‘마음과 생각’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본문이고 두 번째

¹¹³ 조병호, *마음과 생각 12월호*, 7.

¹¹⁴ Ibid., 6.

는 묵상에 관한 부분이다. 본문은 그 날 묵상할 성경 본문 한 장과 관련된 찬송가 한 곡으로 이루어진다. 묵상에 관한 부분은 성경의 전체와 부분을 아우르는 묵상법인 통(通)으로 보는 방식으로, 그 안은 숲 보기, 숲과 나무, 마음 적기, 생각 적기, 함께 드리는 기도, 옹달샘이라는 총 여섯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본문의 분량은 매일 하루에 성경 한 장이다. 번역은 개역개정 한글 성경을 따른다. 기존의 성경에는 아래 부분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주석이나 해설이 있으나 여기서는 첨가하는 내용 없이 오로지 성경 본문만을 실고 있다.

찬송

‘마음과 생각’ 에는 말씀을 묵상하기 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며 찬양을 드리도록 되어 있다. 같은 찬양이 실린 ‘통일찬송가’의 장수도 함께 나와 있다.¹¹⁵ 찬송가는 악보 없이 1절 가사만을 제시한다.

숲 보기

성경 본문을 읽기 전, 혹은 본문 말씀을 1 ~ 2회 정도 읽은 후, 그 본문이 넓게는 성경 전체에서, 좁게는 성경 각 권이라는 숲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글이 소개 되어 있다.¹¹⁶ 이것이 ‘숲 보기’에 해당된다. 성경의 숲을 먼저 파악하는 것은 말씀 묵상이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나 적용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 주는 과정이다.¹¹⁷ 또한 성경을 전체로 보며 이야기로 읽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부분으로서 숲 보기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를테면 본문이 다니엘 6장,

¹¹⁵ Ibid.

¹¹⁶ Ibid.

¹¹⁷ Ibid.

곧 ‘사자 굴 속의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하면, 그에 따른 숲 보기는 다음과 같이 전개될 수 있다.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집니다.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새로운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새로운 제국의 왕 다리오는 크나큰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총리 3명을 세우고 그중에 다니엘을 신임하여 총리들과 고관들과 총독들의 머리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자 페르시아 제국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여 다니엘을 모략하고, 결국 사자 굴에 넣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무사했으며 이를 통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높입니다.¹¹⁸

예로 제시한 숲 보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성경적인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첫째, 본문의 역사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즉,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던 때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본문이 차지하는 위치를 발견할 수 있다. 곧,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던 식민지의 백성이었으나 이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본문 속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 다리오는 다니엘을 신임하였고, 제국의 신하들은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였다. 그리고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넷째, 본문 내용의 결론을 확인할 수 있다. 신하들의 모략으로 사자 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무사했으며,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높였다.

숲과 나무

숲에 있는 많은 나무들 중에서 나무 한 그루를 선택해서 자세히 살펴본다.¹¹⁹

숲 보기를 통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바라보던 눈을 ‘숲과 나무’를 통해 부분으로

¹¹⁸ Ibid., 118.

¹¹⁹ Ibid., 6.

돌리고 있는 것이다. 성경 속의 구체적인 사건 혹은 인물들의 실제 이야기인 부분에 주목함으로써 개인적인 삶의 현장을 떠올릴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영혼의 귀를 열어 현재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¹²⁰ 앞서 인용했던 다니엘 6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숲과 나무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너를 구원하시리라(16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16절)라고 다리오 왕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으로부터 최고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그 문턱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을 구원해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내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풀무불에서도, 그리고 사자 굴에서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¹²¹

숲과 나무는 본문을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앞서 숲 보기를 통해 성경의 전체적인 숲이 배경지식이 된 상태에서, 그 부분을 이루는 나무를 보게 하기 때문에 묵상의 초점이 전체에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이는 본문의 흐름과 상관없이 묵상하는 것, 즉, 개인의 감정과 가치에 따라 마구잡이로 몇 구절을 선택하여 묵상하는 실수를 줄여주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이로써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마음 적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화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

‘마음과 생각’ 에는 성경 안에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 보면서 그 마음을 깨

¹²⁰ Ibid., 7.

¹²¹ Ibid., 118.

닫는 은혜를 누리도록 ‘마음 적기’ 라는 메모란이 마련되어 있다.¹²² 앞서 ‘숲과 나무’ 에서 막연하게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글로 적는 것이다. 이 과정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과정인 것이다.

생각 적기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한 다짐은 ‘생각 적기’ 에 기록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야 할 점, 감사해야 할 내용들, 마음의 다짐과 기도제목 등을 솔직한 마음으로 적는 것이다.¹²³ 이 작업은 깨달음에 대한 적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함께 드리는 기도

말씀에 기반하여 변화된 마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함께 드리는 기도’ 가 있다.¹²⁴ 여기서는 구체적인 한두 문장으로 된 짧은 기도를 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묵상을 정리하고 ‘생각 적기’ 에서 결단한 내용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는다.

옹달샘

‘옹달샘’ 은 큐티했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삶 속에서 생기는 영적 갈증을 해소할 샘물과 같은 짧은 글들을 찾아 실은 부분이다.¹²⁵

¹²² Ibid., 7.

¹²³ Ibid.

¹²⁴ Ibid.

¹²⁵ Ibid.

‘마음과 생각’의 필요성

기존의 큐티는 성경적인 아무런 지식이 없이 ‘어느 날, 그냥, 느닷없이’ 큐티를 하게 한다. 그러나 성경통독을 통한 성경 지식이 바탕이 되어있다면 올바른 묵상으로 이끌 수 있다. 여기에 ‘마음과 생각’으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면 성경의 전체와 부분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따라서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토대로 한 ‘마음과 생각’으로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음과 생각’으로 묵상하는 것을 통해 성경 한 장의 숲과 나무를 매일 보았다면, 이것이 확장된 과정이 통하는 교회의 성경통독과 묵상이다. 즉, 통하는 교회에서 매일 꾸준히 해 왔던 성경통독은 성경 전체의 숲을 보는 과정이었고, 성경통독을 하는 동시에 매일 ‘마음과 생각’으로 묵상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자세히 보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일년일독 통독성경’으로 성경통독을 하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매일 한 장씩 성경을 묵상하면 성경 전체의 숲과 나무를 볼 수 있다.

왜 3년인가?

아이폰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프레젠테이션에 숫자 3을 자주 사용했다.¹²⁶

그에 의하면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은 세 가지 아이템으로 구성된다고 했다. 왜냐하면 3으로 나누면 전달력과 이해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믿음, 소망, 사랑’,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가위, 바위, 보’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그가 제안한 3-step speech는 같은 이야기를 세 번 반복하는 구조이다. 특히 뉴스에서는 개요, 본론, 다시 한 번 요약물 통해 같은 이야기

¹²⁶ 김정태,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1* (서울: 멘토르, 2006).

를 세 번 반복함으로써 기사의 전달력과 이해력을 높인다고 설명했다.¹²⁷

스티브 잡스의 생각은 전달과 이해의 측면에서 3의 위력을 이용한 좋은 예다. 그런데 연구자의 경험과 목회 현장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성경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읽으면서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통독과 더불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 전체를 묵상하는데 3년의 기간이 필요했다.

‘마음과 생각’ 3년 큐티 목차

조병호가 집필한 통독 큐티인 ‘마음과 생각’을 따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큐티 하는데 3년이 걸린다. 3년 간 진행되는 큐티의 전 과정을 묵상하는 순서에 따라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년

<표8> ‘마음과 생각’ 큐티 1년차¹²⁸

월	성 경
1	창세기
2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3	출애굽기, 시편
4	출애굽기, 레위기, 시편
5	레위기, 민수기, 시편
6	민수기, 신명기, 시편

¹²⁷ Ibid.

¹²⁸ 통독큐티 <http://www.tongbooks.com>.

7	신명기, 시편
8	신명기, 여호수아, 시편
9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시편
10	룻기, 사무엘상, 시편
11	사무엘상, 사무엘하, 시편
12	사무엘하, 열왕기상, 시편

2년

<표9> ‘마음과 생각’ 큐티 2년차

월	성 경
1	열왕기하, 아모스, 호세아, 시편
2	호세아, 요나, 열왕기하, 이사야, 시편
3	이사야, 시편
4	열왕기하, 이사야, 시편
5	이사야, 미가, 열왕기하, 스바냐, 하박국, 나훔, 시편
6	요엘, 열왕기하, 예레미야, 시편
7	열왕기하, 예레미야, 시편
8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오바다, 역대상, 시편
9	역대상, 역대하, 시편
10	역대하, 에스겔, 시편, 잠언
11	에스겔, 잠언
12	에스겔, 다니엘, 잠언

3년

<표10> ‘마음과 생각’ 큐티 3년차

월	성 경
1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잠언
2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잠언
3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잠언
4	
5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잠언, 아가, 전도서
6	
7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전도서
8	
9	로마서, 사도행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히브리서, 욥기
10	
11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요한일·이·삼서, 요한계시록
12	

왜 3년인가?

성경에서 3은 ‘완전수’를 의미하며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 독립적이고 서로 대치될 수 없는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세 위격은 한 분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한다.¹²⁹ 또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지내셨

¹²⁹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으며,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당대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에 3년의 제자훈련의 효과가 나타났고, 그 의미는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의 최소한의 변화에도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속담에 ‘서당 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는 말이 있다. 개가 서당에서 3년 동안 지냈다면,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이 소리 내어 책을 읽는 소리를 계속 들었을 것이다. 비록 개라도 3년 간 비슷한 소리를 들으면 풍월을 읊을 정도로 책 읽는 소리가 몸에 체득된다는 것이다. 물론 인간을 짐승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짐승인 개도 3년만에 습관이 형성된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3년의 세월은 학문을 하거나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기에 충분한 시간일 것이다.

본 연구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경의 분량을 어느 정도로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다. 그러던 중에 ‘일년일독 통독성경’에 의거한 통독 큐티인 ‘마음과 생각’을 따라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성경이 총 1189장이므로 성경 전체를 묵상하는데는 3년이 소요되며, 이로써 3년이라는 기간은 말씀 묵상에 필요한 실제적인 시간이 되었다.

지금까지의 큐티는 만나 의식이였다. 즉, 오늘 하루 먹는 영혼의 양식이라는 개념으로 큐티를 생각해왔다. 그런데 성경은 태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오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성경 전체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말씀을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생활을 할 때 먹었던 만나로 생각했다는 것은 말씀을 하루하루 살아갈 힘, 즉, 그날의 에너

지원으로 여겼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목상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으로써 하루만 기능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인생 전체를 통해 따를 지침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목상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므로 역사적 순서에 따라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루에 한 장씩 꼼꼼히 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3년의 기간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3년 간 큐티하기

역사 순서에 따라 3년 간 진행되는 큐티의 전 과정을 20 마당에 맞추어 좀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성경을 일독하면서 목상하는데 3년이 필요한 이유가 보다 명확해진다. 앞서 제시한 ‘마음과 생각’ 3년 큐티 목차를 20 마당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의 <표11>이 된다. 여기서 ‘마음과 생각’ 3년 큐티 목차와 20 마당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마음과 생각’ 3년 큐티 목차는 성경을 매일 한 장씩 목상하도록 하되 월별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율기,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시가서는 다른 성경과 같이 목상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약간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역사 순서에 따라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꼼꼼히 목상해나가야 한다.

<표11> ‘마음과 생각’ 큐티 3년과 20 마당

마당	주제	성경 목차	3년 큐티 목차	
1	하나님의 마음	창세기	1년	1~2월

2	열방을 향한 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장 ~10:10		3~5월
3	만나세대	민수기 10:11~36장, 신명기, 시편 90편		6~7월
4	신앙계승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8~9월
5	천년모범	사무엘상·하, 역대상, 시편, 열왕기 상 1~2장		10~11 월
6	마음과 지혜	열왕기상 3~11장, 역대하 1~9장, 시 편 72,127편, 잠언, 아가, 전도서, 욥기		12월
7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열왕기상 12~22장, 열왕기하 1~20 장, 역대하 10~32장, 아모스, 호세 아, 요나, 이사야, 미가		2년
8	절망 앞에 선 희 망	열왕기하 21~25장, 역대하 33~36장,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예레 미야, 오바댜, 예레미야애가	5~8월	
9	징계, 희망의 디 딤돌	에스겔, 다니엘	10~12 월	
10	재건공동체	에스라, 시편 119편,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3년	1~2월

11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신구약 중간사		
12	기쁨을 위한 탄생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1장 ~3:19, 누가복음 1장~6:19, 요한복 음 1~2장		3~4월
13	한 영혼 사랑	마태복음 5~19장, 마가복음 3:20~10:31, 누가복음 6:20~19:10, 요한복음 3~11장		5월
14	용서를 향한 열정	마태복음 20장~27:31, 마가복음 10:32~15:20, 누가복음 19:11~23:25, 요한복음 12장~19:16		
15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마태복음 27:32~28장, 마가복음 15:21~16장, 누가복음 23:26~24장, 요한복음 19:17~21장		6월
16	열리는 제자 시대	사도행전 1~12장		
17	경계를 넘어선 복 음의 확장	사도행전 13장~21:16, 데살로니가전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7~9월
18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사도행전 21:17~28장, 에베소서, 빌 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도 서, 디모데전·후서		10월

19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 서, 유다서, 요한일·이·삼서		11월
20	미리 건네받은 승 리의 노래	요한계시록		11~12 월

소리-생각 방법론

렉시오디비나(*Lectio Divina*)

‘묵상’ 이라고 하면 ‘렉시오디비나’ 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렉시오디비나는 *lectio*와 *divina*가 결합된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조명에 의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한다.¹³⁰ *Mario Masini*에 의하면 *lectio*는 성경과 관련되고 *divina*는 성령과 관련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을 렉시오디비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¹³¹

한편 류충열에 따르면 렉시오디비나는 라틴어 “모으다”는 뜻의 *legere*의 명사형인 *lectio*와 “하나님의, 신성한, 신적인”을 뜻하는 *divina*가 하나로 묶여진 말이다.¹³² 이 때 렉시오디비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모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렉시오디비나를 영어권의 해석에 비추어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진홍에 따르면 영어권에서는 렉시오디비나를 대체로 *spiritual reading*, *holy reading*, *sacred reading*등으로 번역하거나 라틴어 *Lectio Divina*를 그대로 사용하며, 우리말로는 거룩한 독서, 영적 독서, 성독(聖讀), 신적 독서 그리고 라틴어 음

¹³⁰ Mario Masini, *Lectio Divina: An Ancient Prayer That Is Ever New* (New York: St. Pauls, 1998), 1-4.

¹³¹ Ibid.

¹³² 류충열, “영성수련의 한 과정으로서의 관상기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Contemplative Prayer as a Process of Spiritual Discipline,”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2008), 55. 허성준,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왜관: 분도출판사, 2003)에서 재인용.

그대로 렉시오디비나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¹³³ 즉, 렉시오디비나를 우리말로 번역한다는 것은 영어권에서 번역한 렉시오디비나를 한글로 번역하거나, 라틴어인 *Lectio Divina*를 소리나는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김진홍은 렉시오디비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하나됨에 이르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한 순종의 마음으로 듣고, 내면에 울려 퍼진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하나됨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다.¹³⁴ 요약하면 말씀, 묵상, 기도, 관조의 과정을 차례대로 거치면서 하나님과의 합일을 이루는 것이 렉시오디비나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렉시오디비나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Lectio Divina*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도의 영혼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흐름으로, 하나님과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관조를 지향하는 경건 훈련이다.¹³⁵

따라서 렉시오디비나는 오늘날 큐티의 토대를 이루는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는 경건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¹³⁶

¹³³ 김진홍, “韓國教會 敬虔訓練으로서의 QT 研究와 適用方案,” 32.

¹³⁴ Ibid., 35.

¹³⁵ Ibid., 53.

¹³⁶ 손태주, “Lectio Divina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성에 대한 연구: 경기성서신학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8), 21. 오방식, *성서와 거룩한 독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22, 재인용.

렉시오디비나 vs 기존 묵상

렉시오디비나가 관조를 지향하는 경건훈련¹³⁷이라면 기존 말씀 묵상은 단어에 치중하는 묵상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묵상은 말씀을 묵상할 때 단어 자체에서 주는 의미와 깨달음을 중시하여 그 뜻을 계속 고민하고 살폈다고 볼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끄는 단어들에 주목했다는 이야기이다. 예컨대 순종이나 충성과 같은 단어들은 추상적이지만 구체적인 실천을 불러일으킨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묵상에서는 그러한 단어들을 계속 묵상했다.

그런데 말씀 전체를 놓고 볼 때 단어에 집중한다는 것은 부분에 주목하겠다는 뜻을 내포한다. 전체가 아닌 부분에 주목하면 순종이나 충성이 나오게 된 맥락은 사라지게 되고 그 결과물인 순종, 충성만 남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여 성경 속에서 도출한 핵심 단어가 그 단어를 묵상하게 된 맥락을 포함하지 못한 채 말씀과는 분리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말씀 묵상은 단어 묵상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단어의 뜻을 삶에 적용하다 보니 무리한 적용으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단어를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했던 이야기가 나와 있다.¹³⁸ 이 장을 읽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단어는 ‘순종’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순종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¹³⁷ 김진홍, “韓國教會 敬虔訓練으로서의 QT 研究와 適用方案,” 52.

¹³⁸ 창세기 22:2. 김명관, “로마서 4장에 나타난 바울의 아브라함 이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aul's Understanding of Abraham in the Rom 4.”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2013), 20.

이 100세 때 얻은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한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그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실행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게 된다. 말씀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실에만 집착한 결과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표현하는 추상명사인 순종만 머릿속에 남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단어를 붙들고 자신에게 적용할 내용을 찾는 것을 묵상이라고 여기게 된다.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를 하나의 단어로 축약하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서 실천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 단어가 태동하게 된 말씀 전체의 맥락을 도외시키고 단어만 붙잡는 것은 말씀과 상관 없는 적용을 초래할 수 있다.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그간의 세월과 수많은 사건들이 어우러져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간과하고 순종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 남게 한다면, 큐티하는 사람의 삶에 순종을 구체적으로 접근시키기가 어렵게 된다. 하나님을 믿은 후에 자신이 살아 온 과정을 돌이켜보고,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며, 그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 변화시켜야 할 자신의 생각과 삶의 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보는, 즉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과정이 묵상에서 필요하다.

목상의 새로운 패러다임

통(通) 방법론(Tong methodology)

앞서 언급한 조병호의 통(通) 방법론은 성경 전체를 통(通)으로 보는 방법이다. 기존의 목상을 보완하고 말씀에 계시된 의미를 풍부하게 깨닫기 위해서 통(通) 방법론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었지만, 한가지 더 소개하자면 성경을 소리로 들으면서 읽는 방법도 있다. 이 때, 성경을 소리로 들으면서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면 성경을 통(通)으로 보는 데에 도움이 된다.

소리-생각 방법론

성경은 눈으로만 읽어서는 100% 사용할 수 없는 책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소리 내어 읽을 때,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살아난다.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오늘날과 같이 책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말씀을 누군가 먼저 들었고 들은 말씀을 소리 내어 전했으며, 또다른 누군가는 귀로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소리내어 전함으로써 가르치는 장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신명기 6장4절)’ 라고 시작되는 말씀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후에는 말씀을 눈으로 읽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때에는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읽는 성경 읽기가 가능해진다. 조병호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로마서 10장17절)’ 는 로마서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은 소리 내어 읽을 만한 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¹³⁹ 성경을 소리 내어 읽으면 눈과 귀와 입이 동시에 움직인다. 그 뿐만 아니라 소리의 흐름을 따라 머리 속에서는 상상력을 동반한 생각이 전개된다. 성경을 소리로 들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성경을 소리로 읽거나 듣는 방법을 ‘소리-생각 방법론’이라 부르기로 한다.

소리로 읽기

눈으로만 읽는 경우에는 책을 읽는 과정과 생각하는 과정이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하나로 결합되는 데에 한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글을 읽어가는 눈의 흐름과 글의 내용을 생각하는 뇌의 흐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글을 읽는 눈의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고 두뇌가 글의 내용을 더 빠르게 상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글을 읽을 때 소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와 다르다. 소리를 사용하여 글을 읽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째, 입으로 소리 내어 글을 읽는 것이다. 이 때 눈으로는 글을 따라가야 하므로, 눈으로 읽는 속도와 입으로 읽는 속도를 일치시켜 가게 된다. 또한 귀로는 읽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머릿속 생각도 글을 읽는 속도와 비교적 비슷하게 된다. 사이토 다카시는 아이의 소리 내어 책 읽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책을 소리 내어 읽으면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며, 마음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지며 두뇌 회전도 빨라져 이해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¹⁴⁰ 둘째, 소리로 듣는 것이다. Rankin(1980)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시간의 45%를 듣는 활동을 하면서 보내는 데 반해 말하기에는 30%, 읽기에는 16%, 쓰기에는 9%의 시간을 할애한다고 하였다.¹⁴¹ 인간이 의사소통 과정 중에서 듣기에 가

¹³⁹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0.

¹⁴⁰ 사이토 다카시, *오래 읽는 아이* (서울: 로그인, 2013), 98.

¹⁴¹ 김영미, “듣기 전 단계에서 CALL을 통한 변화음 연습이 영어 청해에 미치는 영향 = (The)

장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듣는 것이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를 돕는 활동이기 때문인데, 이때 눈을 사용하지 않고 귀와 머리만 사용해서 성경을 소리로 듣게 되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눈으로 미리 볼 수 없기 때문에 청자는 소리에만 집중하게 된다. 따라서 눈으로 읽는 것보다 한층 더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도 있게 된다.

소리로 읽는 방법 중 소리로 듣는 것의 유익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듣는 것은 인간의 신체적 발달과 뇌의 성장, 그리고 의사소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의 오감(五感)은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의 5가지 감각인데, 이 중 청각은 태아의 귀가 완성되기 이전부터 시작되는 감각이다.¹⁴² 이와 같은 청각적 특징은 인간에게 행해지는 최초의 교육인 태교가 듣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태아에게 있어 중요한 교육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태아의 뇌의 성장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¹⁴³ 뇌는 척수와 더불어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머리뼈 내부의 기관으로 신경계의 최고위 중추이며 운동, 감각, 언어, 기억 및 고위 정신기능을 수행하고, 각성, 항상성의 유지, 신체대사의 조절 등 생존에 필요한 환경을 유지하는 기관이다.¹⁴⁴ 따라서 듣는 것은 태아 때부터 뇌의 성장에 기여하며, 뇌는 인간의 신체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듣는 것과 인간의 신체적 발달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뇌는 태아기를 거쳐 유아기에도 계속 성장한다. 부모들은 어린 자녀

Effect of Practicing Sandhi with CALL on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2001), 10.

¹⁴² 서정록, *잃어버린 지혜 듣기* (서울: 샘터, 2007), 41.

¹⁴³ Ibid., 39.

¹⁴⁴ 네이버 지식백과, 『태아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박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75762&cid=42251&categoryId=51188> (2016년 3월 8일 접속).

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준다. 서양에서는 bedtime story라는 단어가 있을 만큼,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모가 동화책을 읽어 주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 bedtime story 즉, ‘(어린이에게 들려주는) 잠잘 때의 동화’¹⁴⁵는 잠들기 전에 아이의 심리 상태를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용도로도 활용된다. 또한 성인들도 시각적 정보보다 청각적 정보만 주어졌을 때 상상력과 궁금증이 증폭되어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이는 라디오 연속극을 들으면 성우들이 대사를 읽을 때 어떤 표정과 동작을 하고 있는지 상상하게 되고 그들이 연기하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창의성은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으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을 포함하는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포함하는 다양한 지적 능력, 인성, 지식, 환경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¹⁴⁶ 따라서 듣는 것을 통해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이것은 뇌의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의사소통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때로는 몸짓, 발짓, 표정, 억양 등도 의사소통의 도구가 된다. 전술하였듯이 인간은 시간의 45%를 듣는 활동을 하는 데 사용하며, 이는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보다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즉, 듣는 것은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경청(傾聽)인데, 타인에게 존경 받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¹⁴⁵ 네이버 지식백과 『영어사전』 (두산동아, 2008)

<http://endic.naver.com/enkrEntry.nhn?sLn=kr&entryId=5bc9518c92ac4183bbee05206c7fcaf2> (2016년 4월 4일 접속).

¹⁴⁶ 네이버 지식백과 『교육심리학용어사전』 (학지사, 20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44787&cid=41989&categoryId=41989> (2016년 3월 8일 접속).

리더십들은 경청을 잘 하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들이다. 이와 관련되는 서적인 『경청』(조신영, 박현찬, 위즈덤하우스)에서 출판사 서평을 보면 ‘이청득심(以聽得心) 즉,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라는 용어를 책의 주제로 언급하고 있다.¹⁴⁷ 따라서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듣는 것을 잘 해야 하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소통의 기술이므로, 의사소통과 듣는 것은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소리로 듣는 것을 성경 읽기에 활용하는 근거는 성경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책으로 나오기 전에는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이를 구전(口傳)이라고 한다. 따라서 성경을 접하지 못했던 과거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 왔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2세 때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을 하루 동안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는데, 요나가 건성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였다.¹⁴⁸ 남유다의 여호야김 제사년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리실 재난의 말을 바룩에게 불러주어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고 기록된 글을 백성의 귀에 낭독하게 하여, 그들이 악과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였다.¹⁴⁹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려 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한 것이다.

따라서 소리-생각 방법론을 성경 읽기와 큐티에 적용하게 되면 말씀을 소리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말씀이 소리로 다가온다는 것은 말씀이 이야기로 들려진다는 것과 같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가 들려주는 동화책 이야기를 좋아한다. 특별히 아직 글을 모르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

¹⁴⁷ 조신영, 박현찬, *경청* (서울: 위즈덤하우스, 2007).

¹⁴⁸ 요나 1:1-2, 3:1-10.

¹⁴⁹ 예레미야 36:1-8.

머니의 이야기가 더욱 재미있게 받아들여진다. 어머니의 동화책 이야기를 들으면 책 속의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지듯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리로 듣는 이야기는 상상력을 유발한다. 상상은 생각으로 이어지고 생각은 목상이 된다.

상상으로 읽기

이야기를 소리로 들으면 내용을 상상하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Leonard Sweet는 ‘내러포’ (narrative + metaphor)라고 명명했다.¹⁵⁰ 여기서 내러티브는 이야기를 의미하고 메타포는 은유, 곧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다.¹⁵¹ 따라서 말쑤를 소리로 듣고 생각을 은유로 하는 것이 ‘소리-생각 방법론’ 이므로, 이 방법론을 Sweet의 내러포와 관련지으면 ‘이야기 은유법’ 이라고 할 수 있다.

Sweet에 의하면 내러포는 “이야기의 접근성과 근접성을 가진 은유적 이미지의 힘” 이다.¹⁵² 즉, 이야기와 은유의 장점을 결합하여 그 이상의 효과를 창출해내는 표현 기법이다. 따라서 내러포를 말쑤 목상에 적용하면 목상하는 자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은유가 가진 상상력은 성경 속 이야기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부각시키는 단계로 나아가게 한다.

뿐만 아니라 내러포는 논리성과 합리성을 넘어 인식과 사고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표현 방식이다.¹⁵³ 다시 말해, 내러포는 이야기에 은유를 가져옴으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욱 깊고 풍부하게 바꾸며 새로운 의미를 탄생시킨다.

즉, 내러포는 이미지와 은유를 통해 창조적으로 생각을 만들어내고 표현하는 통로가 된다. 중요한 것은 내러포가 인간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주어 이야기가 지

¹⁵⁰ 레너드 스윗 “기독교, ‘내러포’로 소통하라,” (당당뉴스 2014년 1월 18일).

¹⁵¹ Ibid.

¹⁵²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성경교수방법으로서의 내러포 탐구,” 84 *신학과 세계* (2015), 527-528.

¹⁵³ Ibid., 528.

닌 의미를 확장시키는데 공헌하지만 추구하는 바가 허구가 아닌 진리라는 점이다. 따라서 내러포를 통해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서 내외적으로 관련성이 충분한 의미를 발견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진리의 문으로 들어서게 된다.¹⁵⁴

김영래는 교육적 언어로서의 내러포에서 상상력의 각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내러포는 교육의 언어로서 상상력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이야기와 은유/이미지는 상상력이라는 통로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Douglas Sloan은 상상력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내적 능력”¹⁵⁵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상상력은 환상(fantasy)와 구별되어야 한다. 환상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를 떠올리는 것이다. 반면 상상력은 존재하는 실체에 대한 생각을 뜻한다. 그리고 존재하는 실체란 믿음과 신념의 대상이 되는 물질적, 추상적 실존인 것이다.¹⁵⁶

기존의 목상이 단어에 치중했다면, 내러포는 성경 이야기 전체를 목상하게 한다. 아브라함의 예에서 나타난 순종이라는 단어에 얽매이는 대신에 순종의 이야기 전체를 목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때 목상을 하기 위한 접근법은 메타포, 곧 은유(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연길에 의하면 내러포가 이야기를 통해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 보여주기 때문이며, 내러티브는 허공에 떠도는 명제나 단어이나 교리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¹⁵⁷ 그래서 성경을 듣거나 읽을 때 시간과 공간을 염두해두고 이야기를 따라가면 그 내용을 자신이 현재 직면한 상황에서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할 수 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소리-생각 방법론을 활용하면 소리로 듣고 은유로 생각

¹⁵⁴ Ibid., 529.

¹⁵⁵ Douglas Sloan, “Imagination, Education, and Our Postmodern Possibilities,” 15 *ReVision* (Fall 1992), 46.

¹⁵⁶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84 *신학과 세계*, 541.

¹⁵⁷ 이연길, *이야기 설교학* (서울: 쿤란출판사, 2003), 23.

하게 되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제 III 장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

통성경큐티 방법론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성경 읽기는 다음 네 가지 성경 읽기의 결합으로 완성되는데, 이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성경 읽기,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에서 성경 읽기, 사과의 폭이 확장되는 성경 읽기, 하나의 큰 스토리로 성경 읽기’이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성경 읽기

그동안 성경은 66권이 독립되어 있다는 선입견이 청년들의 의식 속에 있었다. 이는 각 권이 쓰인 의도와 목적이 다르듯 내용도 각각 별개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성경을 다양한 장르, 다양한 분야, 다양한 사건이 총망라된 백과사전처럼 여기게 했고, 또 어렵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결국에는 깊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요즘 청년들을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데 ‘일년일독 통독성경’으로 성경통독을 하고 ‘마음과 생각’을 통해 역사 순서대로 큐티를 했을 때,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고, 성경 전체에서 본문이 차지하는 위치와 가치를 파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추구하는 나라(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람들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¹

『기독교연합신문(2009년 3월 1일)』에서 조병호는, 성경통독이란 성경 66권 전체를 한 권으로 보고,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라고 소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매일 한 절씩 묵상하는 방법으로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찾기가 어렵고, 또한 부분적으로 말씀을 접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보는 부분은 계속 보게 되지만 보지 않는 부분은 계속 보지 않게 되기 쉽다고 하였다.² 이는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역사의 순서에 맞게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면서 성경 전체가 주는 메시지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저스링크글로벌(서구교회와 비서구교회간의 전방위적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2009년 초에 창립됨)에서는 2009년 5월 1일 폴 구치 빅토리아대 총장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는데, 폴 구치 박사는 강연에서 “최근 서구 신학에서 성경을 전체적, 맥락적으로 보는 풍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성경을 절 단위로 쪼개어 읽기 보다는 66권 전체를 한 권으로 보는 가운데 전체를 통해 흐르는 정신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³ 이러한 발언은 그동안 분석적인 연구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서구 신학에 일침을 가하고, 동양의 총체적인 접근법을 인정하고 수용하자는 뜻을 내포한 것이다. 또 한국 교회의 구와 절에 집착하는 단편적인 큐티 방식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었다.

성경은 개개의 분리된 책들의 의미 없는 조합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한 권의 책이므로 역사 순서에 따라 통(通)으로 읽어갈 때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게 되고,

¹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22.

² 성경통독원, “성경통독원 화보집 1989~2010,” (통독원, 2010), 75. 기독교연합신문(2009년 3월 1일)에서 재인용.

³ Ibid.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목상을 할 수 있다.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에서 성경 읽기

당시의 사회 및 문화적 배경, 제국 간의 대립 구도, 신분에 따른 갈등 양상 등을 알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 성경 속 인물들의 말과 행동, 생각의 단서 등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성경에서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이라는 실제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성경통독과 목상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때,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무수히 많다.

성경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유적이나 유물, 그리고 연구는 많다. 예컨대 대영 박물관에는 현재 앗수르 유물이 1,106개, 바벨론 유물이 3,895개, 페르시아 유물이 84개, 헬라 유물이 95개, 그리고 로마 유물은 601점이 전시되어 있다. 이 유물들은 성경과 직간접적으로 모두 관련이 있다.⁴

영국의 고고학자 어스틴 헨리 레이어드(Austen Henry Layard)는 1846년부터 약 7년에 걸쳐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추정되는 곳에서 앗수르 유적과 유물들을 발견했는데, 땅 속에서 발견된 유물들 가운데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앗수르 왕의 사자 사냥 부조, 남유다 백성의 노역 부조, 앗수르의 전쟁 승전 기록, 그리고 사자상 등이 있었다.⁵ 레이어드의 헌신적인 작업은 앗수르의 니느웨가 실제 존재했던 지역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그 역사에 관한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한다.

특히 대영 박물관에 있는 앗수르의 유물인 블랙 오벨리스크(obelisk)는 고대 이집트가 태양신을 숭배하며 이를 상징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그들의 종교 목적 외

⁴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4), 21.

⁵ Ibid., 21-22.

에도 그 시대의 역사를 돌에 새겨 남긴 것이다.⁶ 여기에는 앗수르 왕 살만에셀 3세(B.C.858-824)의 기념비로 북이스라엘 왕 예후(B.C.842-815)가 굴욕적인 모습으로 무릎을 꿇은 채 앗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모습이 부조로 새겨져 있다.⁷ 이와 같은 유물을 통해 구약에 나온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그 당시 국제 외교를 어떻게 전개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떠했는지 등을 목상할 수 있다.

그러나 큐티를 할 때에는 위와 같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사전 지식들이 도외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세계사와 동떨어지게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과 성경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맹신이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팽배해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실과 상관없는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이다.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 지식 즉, 사실에 근거한 큐티는 성경에 대한 믿음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실제적으로 깨닫게 한다.

사고의 폭이 확장되는 성경 읽기

기존의 큐티는 큐티 교재에 나온 메디테이션이나 자기 생각만 목상하게 하여 큐티를 한 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는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려고 하기보다는 변화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실천만 찾게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율법주의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율법주의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 버린 것을 말한다.⁸ 큐티에서 율법주의란 큐티하는 행위 자체가 큐티의 목적을 일소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보다는 큐티의 결과로 자신의 행동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킬 것인가에만 몰두하는 현상을 가리

⁶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나라*, 154.

⁷ Ibid.

⁸ 여주봉, *십자가의 복음 I* (서울: 요단, 2011), 70.

킨다.

2,000년 넘게 지속되어 온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인간 생활의 매뉴얼이 성경 한 권에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방대한 양은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성경은 아는 만큼 읽어 낼 수 있는 책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나라의 개념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당시의 상황과 역사적 맥락을 생각하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적인 성경 읽기는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준다.

이 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당시의 상황, 역사적 맥락 등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며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이 통(通)으로 꿰뚫어지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로써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에서 벗어나며 자신의 삶을 통찰하는 안목을 얻고 율법주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고가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큰 스토리로 성경 읽기

성경을 통(通)으로 읽으면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에서 성경을 보게 됨으로써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면, 성경을 하나의 큰 스토리로 이해하게 된다. 성경을 하나의 큰 스토리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로 전할 수 있게 된다.

Leonard Sweet은 성경이 ‘이야기’임을 강조했고, 이를 ‘원 스토리(one

story)’로 명명했는데, 성경의 원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⁹ 그는 오늘날의 문화가 이야기에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 또한 이야기와 기호학을 사용해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⁰ 사람들은 동호회나 인터넷 카페 등을 만들어 취미나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SNS¹¹ 같은 온라인 상에서도 이야기의 장(場)을 만든다. 회사는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 경영마인드를 이야기화시키고, 그 이야기를 상품화하여 판매한다.¹² 또한 인간 문명의 발달을 주도했던 중심에는 지식의 나눔이 있었고, 지식은 강연이나 책을 통해 교류되고 계승되는데, 강연이나 책은 사람들이 발견한 지식이나 깨달은 경험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Sweet은 “목회자들은 글이 아니라 이야기와 은유를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이 시대는 명제나 관념적 언어보다 생생한 이야기를 잘 기억하는 문화”라고 했으며, “가장 진실하고 확실한 진리인 성경 이야기(The Story)가 전해지도록 교회와 가정에서 이를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¹³ 따라서 이야기를 잘 듣고 잘 기억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야기로 전한다면 듣는 이들은 열광할 것이다. 그들이 멀리서 어렵듯이 듣던 성경 이야기를 사실대로 생생하게 이야기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불신자들에게 전하기에 앞서 교회와 가정에서 먼저 전해야 한다.

특히 조병호는 “성경 이야기를 자녀에게 직접 가르쳐주라.”고 하면서,

⁹ 세계적인 미래학자 美 드류대 석좌교수 레너드 스윗 “변화의 시대에 불변의 복음을 이야기로,” (국민일보 2014년 1월 21일).

¹⁰ Ibid.

¹¹ 네이버 지식백과,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6243&cid=42171&categoryId=42180> (2016년 3월 28일 접속).

¹² 고객을 잘 아는 기업은 제품이 아니라 ‘이야기’, 즉 기업과 관련된 핵심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기업을 재편한다. 레너드 스윗,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47.

¹³ Ibid.

“부모가 이솝 이야기나 콩쥐 팥쥐 이야기책을 먼저 읽고,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해서 자녀에게 가르쳐주듯이 성경도 그렇게 하라.” 고 제안했다.¹⁴ 부모들이 먼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때, 부모가 자녀의 성경 이야기 교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야기꾼들(storytellers)이었다는 사실에서 뒷받침된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아들 이삭에게 전했고, 이삭은 야곱에게 전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갈 때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소개했을 때, 야곱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¹⁵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으므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곧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또한 최영인도 성경이 이야기라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그에 의하면, 성경은 하나의 커다란 플롯을 가진 구속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며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백성을 구속하신다.” 는 내용을 그려낸 것으로 본다.¹⁶ 또한 “이야기체가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지배적인 장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성경에서 이야기체가 아닌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야기체의 구조와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¹⁷ 고 했다. 즉, 성경과 이야기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어도 이야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성경을 이야

¹⁴ 조병호,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7-8.

¹⁵ 창세기 28:10-22.

¹⁶ 최영인, “성경 플롯을 드러내는 성경적 이야기식 설교 연구: 창세기를 중심으로-A Study of Biblical Narrative Preaching Revealing the Bible Plot,”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4), 113-114.

¹⁷ Ibid.

기로 풀어내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성경 이야기를 명확히 알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허공에 외치는 소리와 같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는 다윗, 솔로몬 등의 인물을 예로 들어 성경을 이야기로 들려주면 주변의 반응은 달라진다. 난해한 교리나 개인의 간증이 아닌 성경 속에 나타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로 들려주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듣게 되고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을 궁금해 한다. 따라서 성경을 이야기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연길에 의하면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며, 이야기를 재미있게 펼쳐 놓으면 그 이야기가 스스로 듣는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재미를 느끼며 감동하고 행동하도록 이끄는 힘이 있다고 했다.¹⁸ 성경을 이야기로 전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 놓기만 하면 된다. 만약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이야기한다면, 성경에 나온 시대와 장소,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배경을 함께 제시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사실대로 묘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이야기로 전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성경 자체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현실감 있는 우리의 이야기로 풍부하게 살려내는 작업은 성경 해석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¹⁹ 그러나 성경 전체를 역사 순서에 따라 꿰뚫고 있으면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성경을 이야기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결단에 이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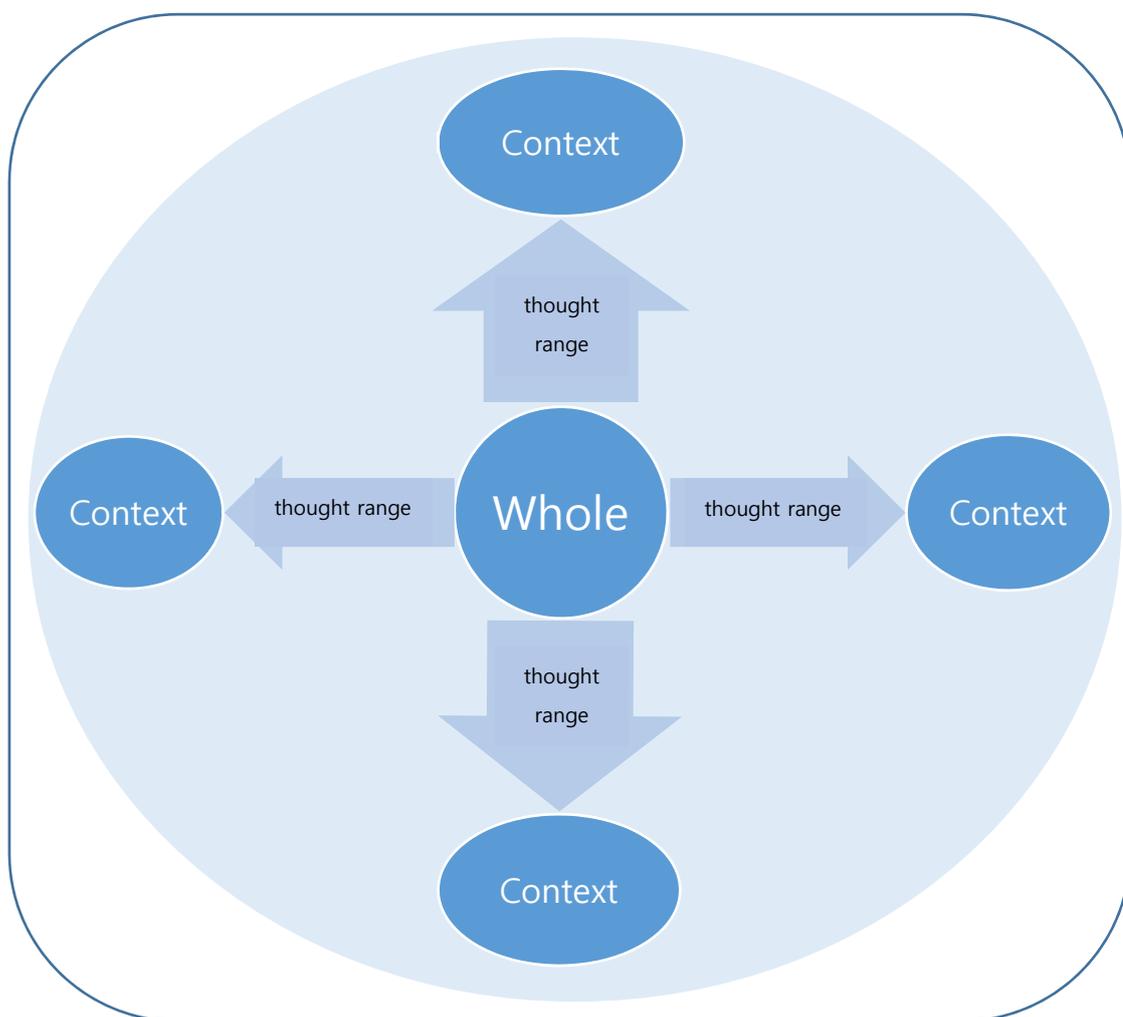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는 성경을 읽을 때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에서 성경을 보며, 이를 통해 사교의 폭이 확

¹⁸ 이연길, *이야기 설교학*, 59.

¹⁹ Ibid., 57.

장되고, 성경을 하나의 큰 스토리로 이해하게 될 때 가능해진다. 이러한 네 가지의 성경 읽기는 ‘전체(whole), 맥락(context), 사고의 확장(thought range), 원 스토리(one story)’로 압축되며, <표1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표12>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의 네 요소



One Story

<표12>에서 중앙의 원은 whole(전체)로써 성경을 의미한다. 이 원을 둘러싸

면서 사방에 포진된 네 개의 원은 context(맥락)을 의미하며 이는 성경의 시대적 상황, 역사적 맥락 등을 내포하고 있다. 중앙의 원과 네 개의 원은 화살표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분사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이 시대와 역사의 맥락으로 가는 구조, 다시 말해서 whole이 context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때 독자 안에서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이 thought range(사고의 확장)이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맥락적 성경 읽기가 되며, 성경은 하나의 one story(원 스토리)로 받아들여진다.

전체(whole), 맥락(context), 사고의 확장(thought range), 원 스토리(one story)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경 읽기에 기여하게 된다. 먼저 성경을 전체로 보는 안목의 측면인데, 이는 창세기, 사도행전 등 성경 각 권을 별개의 책으로 보지 않고 성경이라는 하나의 큰 물줄기를 따라가는 지류라고 보는 것이다. 각 지류는 하나의 큰 물줄기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 즉, whole이다. 그 다음 성경의 각 장면들은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맥락은 context를 의미한다. 이 때, 수많은 맥락 속에서 전체를 재해석하면 말씀이 풍부하게 되살아나며, 여기에서 사고의 확장이 일어난다. 이는 Thought range에 해당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성경이 하나의 큰 이야기로 깨달아지게 되므로, 이를 one story라고 부른다.

전체(whole), 맥락(context), 사고의 확장(thought range), 원 스토리(one story)가 서로 간에 관련을 맺으면서 조화롭게 작용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며,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식의 개선과 실천을 통해, 삶에 변화를 주는 목상을 할 수 있게 된다.

제 IV 장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의 효과

헤게모니의 종결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성경 읽기,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에서 성경 읽기, 사과의 폭이 확장되는 성경 읽기, 하나의 큰 스토리로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하면 이제까지 자신의 생각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헤게모니(hegemony)의 종결’이라고 볼 수 있다.

헤게모니란 어떤 일의 주도권을 가리키며, 정치적으로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을 뜻하고, 국가 기구나 정치 사회가 사회 계층을 통제하거나 그들에게서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것과 관련되며, 사회 및 제도의 지배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지배 계급의 피지배 계급에 대한 권력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한다.¹

성경 묵상에 있어서 헤게모니는 하나님의 뜻인 말씀과 인간의 뜻인 자기 생각 사이의 주도권 다툼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을 읽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내면으로 전달될 때, 자기 생각과

¹ 네이버 지식백과, 『문학비평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31129&cid=41799&categoryId=41800> (2016년 2월 2일 접속).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이 때 표면적으로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절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뜻이 번번이 주도권 경쟁에서 승리해왔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헤게모니는 인간의 지배로 끝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은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주목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서승동, 예수전도단)에 의하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그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삶의 비전이 되며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것이 말씀 묵상이라고 설명한다.² 이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주도권 다툼에서 인간의 패배를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묵상이다.

자신의 큐티 경험을 증언한 여러 사람들의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 『큐티 자료모음 종합편』(두란노서원출판부, 두란노)에 따르면 큐티는 자아를 부정하고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즐겨 하고 그의 말씀대로 생활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늘 솔직한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라고 부탁한다.³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다. 생각이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곧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² 서승동,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서울: 예수전도단, 2008), 53.

³ 두란노서원출판부, *큐티 자료모음 종합편* (서울: 두란노, 2010), 112, 145.

‘일년일독 통독성경’은 성경을 연대기 순이 아니라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 재배열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순서에 의해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독자의 마음속으로 들어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지창조 후에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 1장에서 전반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세기 1:31).’는 표현을 통하여 ‘창조 때의 좋아하시는 하나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창세기 6장에 나온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창세기 6:6).’ 이와 같은 생각의 흐름은 말씀을 짧은 구와 절로 끊어서 매일 조금씩 읽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굴복하는 헤게모니의 종결인 진정한 말씀 묵상은 성경을 역사 순으로 매일 한 장씩 묵상하면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일어난다.

태도의 변화: 공감하는 세대

하나님의 마음이 묵상의 초점이 되면 자신의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게 된다. 이는 말씀에 나타난 표면적인 정보에만 집중하지 않고 각 장면 속에 담긴 하나님을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를 갖추게 되었음을 드러낸다.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현 세대의 삶의 자세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⁴ 국제성경통독원 원장 조병호 박사 “성경으로 돌아가자,” (총회신문 2009년 1월 28일).

요즘 청년들은 주장하는 세대이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이 세대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용어이다. 곧 각자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진리인 시대가 된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설교자의 에토스 연구(2011)”에 따르면 포스트모더니즘의 변함없는 핵심은 모더니즘에 대한 해체 정신이며, 해체 정신은 니체에서 기원한 사상으로 전통적인 관습과 권위를 거부하는 사상인데, 모든 전통적 경전과 규범은 인간이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갖고 만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⁵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 기성 세대에게 도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주장이 논리적인 모순이 없고 사회적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모두 옳다고 여기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입각한 맹신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현 사회를 유지하거나 발전적으로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협하고 깨트리려는 위협한 발상이다.

존 스토틀(John Stott)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늘 기존 세력에 대한 저항과 도전의 반복이었으나 오늘날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철학적 기반을 갖고 주관적 진리를 주장하며 모든 객관적 진리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사상의 변화로서, 객관적이며 보편적 진리를 추구했던 모더니즘 진리관에 대해 새롭게 도전하는 상대주의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⁶ 좀 더 쉽게 말하면 상대주의란 내 생각도 옳고 상대방의 생각도 옳으며 따라서 모두가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사상인 것 같지만, 사실 그 기저에는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려는 생각이 넓게

⁵ 김삼문,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설교자의 에토스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1), 36-37.

⁶ Ibid., 36-37.

갈려 있다. 이러한 견해가 극단에 치우치면 모두가 옳고 나도 옳으니 각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자는 식의 무한 이기주의만 남게 된다.

『2012 한국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남북 통일 당위성에 대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견해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귀하는 남북한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물음에 46.8%가 별로 그렇지 않음, 10.7%는 전혀 그렇지 않음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역사 의식이 부족하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 세대의 단면을 드러낸 대표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⁷ 통일 비용 납부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도 통일을 공감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생각을 재확인할 수 있는데, ‘통일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통일 비용이 들텐데요, 귀하는 연 소득의 몇 %까지 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62.6%가 낼 의향이 없다고 대답했다.⁸ 21세기를 사는 한국 대학생들에게 통일의 문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고, 따라서 남북 분단의 아픔도 절감하지 못했다. 또한 취업 등 현재 당면한 개인의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타인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다.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에 따른 행동도 이끌어 낼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이 보고 느끼며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느끼는 현 세대에게 있어 자기 주장은 자연스런 마음의 발로이며 결과라고 수용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세대의 마음에 말씀이 역사 순서에 따라 통(通)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

통(通)은 포스트모더니즘이 드러낸 부정적 현상인 무관심과 개인주의적 성향

⁷ 권영석, “2012 한국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연구,” *학원복음화협의회* (2012), 92-93.

⁸ Ibid.

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인식 방법론으로서, 통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현상으로서의 극단적 상대주의와 무관심을 뛰어넘는 이해와 조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⁹ 성경을 통(通)으로 읽을 때,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되찾게 되고, 성경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면서, 그 마음을 따라 함께 살아가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이처럼 ‘일년일독 통독성경’에 따른 ‘마음과 생각’으로 큐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이르게 하고, ‘공감하는 세대’로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말씀 묵상뿐만 아니라 현시대의 아픔을 극복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결과이다.

⁹ 조병호, *통이다 LET'S 通* (서울: 통독원, 2009), 140.

제 V 장

프로젝트 실행과정: 통하는 교회의 성경 읽기

프로젝트는 본 연구자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 온 청년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대상은 현재 시무하고 있는 통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년일독 통독성경’으로 성경통독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마음과 생각’을 큐티 교재로 선정하여 역사 순서대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도록 했고, 주일 소그룹 큐티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년 정도 큐티를 한 결과, 교회 안에 역사 순서에 따른 묵상이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되었고, 이후 따로 한 개의 집단이 만들어져서 ‘1년 12독’이라는 프로젝트도 실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프로젝트는 ‘마음과 생각’ 큐티가 진행됨에 따라 성경통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매일의 성경통독 분량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모임은 성경의 더 많은 분량을 하루에 통독함으로써 성경을 전체적으로 머리에 그린 상태에서 묵상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었다. 또한 성경통독과 말씀묵상을 더 적극적으로 생활화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활동들을 구상하여 활용하였다.

‘마음과 생각’ 큐티 교재 선정 (3년 큐티)

월별 큐티 순서

‘마음과 생각’ 으로 3년 간 꾸준히 큐티를 하면 성경을 일독하면서 묵상할 수 있다. 이 때 월별 큐티 순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순서는 앞서 제시한 ‘마음과 생각’ 3년 큐티 목차를 좀 더 세분화한 것이다.

<표13> 월별 큐티 순서표¹

년	월	성경 목차
1년	1월	창세기 1~26장, 시편 1~5편
	2월	창세기 27~50장, 시편 6~9편
	3월	출애굽기 1~20장, 시편 10~13편
	4월	출애굽기 28~30장, 레위기 1~13장, 시편 14~17편
	5월	레위기 14~27장, 민수기 5~12장, 시편 18~21편
	6월	민수기 13~36장, 신명기 1~2장, 시편 22~25편
	7월	신명기 3~29장, 시편 26~29편
	8월	신명기 30장, 여호수아 1~21장, 시편 30~37편
	9월	여호수아 22장 ~ 룻기 2장, 시편 38~45편
	10월	룻기 3~4장, 사무엘상 1~24장, 시편 46~55편
	11월	사무엘상 25장 ~ 사무엘하 19장, 시편 56~63편
	12월	사무엘하 20장 ~ 열왕기상 22장, 시편 64~69편

¹ 통독큐티 <http://www.tongbooks.com>.

2년	1월	열왕기하 1~14장, 아모스 1~5장, 호세아 1~3장, 시편 70~78편
	2월	호세아 4~14장, 요나 1~4장, 열왕기하 15~17장, 이사야 1~8장, 시편 79~86편
	3월	이사야 9~35장, 시편 87~92편
	4월	열왕기하 18~20장, 이사야 36~58장, 시편 93~101편
	5월	이사야 59~66장, 미가 1~7장, 열왕기하 21~23장, 스바냐 1~3장, 하박국 1~3장, 나훔 1장, 시편 102~107편
	6월	나훔 3장, 요엘 1~3장, 열왕기하 24장, 예레미야 1~21장, 시편 108~118편
	7월	예레미야 22~46장, 열왕기하 25장, 시편 119~131편
	8월	예레미야 47~52장, 예레미야애가 1~5장, 오바댜 1장, 역대상 1~19장, 시편 132~140편
	9월	역대상 20~29장, 역대하 1~16장, 시편 141~148편
	10월	역대하 17~36장, 에스겔 1~6장, 시편 149~150편, 잠언 1~4장
	11월	에스겔 7~32장, 잠언 5~8장
	12월	에스겔 33~48장, 다니엘 1~11, 잠언 9~12장
3년	1월	다니엘 12장, 에스라 1~6장, 학개 1~2장, 스가랴 1~14장, 에스더 1~3장, 잠언 13~17장
	2월	에스더 4~10장, 에스라 7~10장, 느헤미야 1~13장, 말라기 1장, 잠언 18~21장
	3월	말라기 2~4장, 마태복음 1~24장, 잠언 22~25장
	4월	마태복음 25~28장, 마가복음 1~16장, 누가복음 1~5장,

	잠언 26~30장
5월	누가복음 6~24장, 요한복음 1~8장, 잠언 31장, 아가 1~6장
6월	요한복음 9~21, 사도행전 1~13장, 아가 7~8장, 전도서 1~3장
7월	사도행전 14~20장, 데살로니가전서 1~5장, 데살로니가후서 1~3장, 갈라디아서 1~6장, 고린도전서 1~5장, 전도서 4~8장
8월	고린도전서 6~16장, 고린도후서 1~13장, 로마서 1~3장, 전도서 9~12장
9월	로마서 4~16장, 사도행전 21~29장, 욥기 1~12장
10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히브리서, 욥기 13~21장
11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욥기 22~33장
12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욥기 34~42장

매일의 큐티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성경통독을 계속 하면서 위에 제시된 표에 따라 매일의 큐티를 진행하였다. 방법은 하루에 한 장씩 ‘마음과 생각’에 제시된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이 때, ‘마음과 생각’의 진행 순서를 따라 ‘숲 보기’와 ‘숲과 나무’를 읽으면서 본문의 내용을 전체와 부분을 아우르며 묵상했다. 그리고 ‘마음 적기’를 통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겨지는 내용을 적어보고, 그 후 ‘생각 적기’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실천하기 위한 개인의 다짐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주제에 맞춘 ‘함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며 큐티를 마무리했다. 큐티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이는 회의를 통해서 참가자 모두가 서로

의 ‘마음과 생각’ 교재를 돌려보는 형식으로 점검하였다.

소그룹 성경통독

소그룹 성경통독은 ‘마음과 생각’ 에서 주일마다 제시하고 있는 소그룹 나눔으로, 주일을 제외한 6일 간의 큐티를 종합하여 본문의 전체 내용을 통찰하고 여러 구성원들의 생각을 나누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소그룹 성경통독이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벗어난 개인의 생각만 나누는 무의미한 모임으로 흐르지 않도록, 각 소그룹 리더들에게 소그룹 나눔 계획안을 연구하여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토대로 소그룹 성경통독을 인도하도록 훈련하였다. 계획안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표14> 주일 소그룹 큐티 나눔 계획안

○○목장 소모임 계획안									
주제	하나님만 의지하라(이사야 11~16장)	대상	○○목장	일시	2014년 3월9일 주일	장소	청년부실	인도	○○ ○
모임 목표	① 목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을 열고 교감하는 것에 주력하여 기도하며 나아간다. ② 본문 말씀을 자연스럽게 숙지하게 하며,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발견하도록 한다. ③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일주일을 시작하도록 격려한다.								

본문	함께 묵상하며 나눌 본문: 이사야 11:6~9 / 12 / 14:3~20		
단계	소모임 활동	소모임 도구	도달점 및 인도 시 유의점
도입 (7)	<p>* 지난 한 주간 각자의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살아간 결과가 어땠는지 나눕니다.</p> <p>▷ <u>리더의 나눔</u>: 지난주에는 입시에 당면한 고3을 지도할 때 지혜롭게 가르치기를 기도부탁했습니다. 처음 맞는 고3이라 기대도 되고 부담도 되어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 평소 집에서 수업준비를 하지 못해서, 학교에서 수업이 없을 때에는 수업준비만 했습니다. 일주일을 돌아보니 학생들의 인생과 실력향상을 생각하며 수업을 이끌기 보다는, 수업을 해치운다는 느낌으로 임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업준비조차 제 중심으로 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위해 더 고민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p>		<p>나눔을 통하여 앞으로 펼쳐질 각자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서로의 삶을 알고 무장해제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든다.</p>

	<p>[숲 보기] (10분)</p> <p>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는 공의와 성실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 맹수와 어린아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뛰놀게 될 것입니다.</p> <p>만민의 기치로 서신 메시아를 중심으로 열방은 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남은 백성이 앗수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 날을 보며 이사야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p> <p>전개 (40) 그 후 여호와의 날에, 바벨론, 앗수르, 블레셋, 그리고 모압이 멸망을 받으리라는 예언이 소개됩니다. 세상은 교만하고 오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p> <p>[숲 속으로] (10분)</p> <p>* 한 주간 동안 ‘마음과 생각’ 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p> <p>▷ <u>리더의 나눔</u>: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심판을 하시지만, 다시금 소망을 주시며 회복케 하시는 분이심을 느꼈습니다. 암울하여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았던</p>	<p>마음과 생각</p>	<p>본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리더가 간략하게 설명한다.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으며 간단명료하게 전달한다.</p>
--	--	---------------	--

<p>시대에, 메시아를 예언하심으로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십니다. 오랜 배움에도 변하지 않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시고 기회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느꼈습니다.</p> <p>[나무 보기] (10분)</p> <p>*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결정하셨을 때부터 시작된 꿈이 이사야 11장에서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신 평화로운 나라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사 11:6~9)</p> <p>▷ 6절: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p> <p>▷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p> <p>▷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p>		<p>리더는 이야기 형식으로 본문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하는 동기 부여를 한다.</p> <p>리더는 통독하고 사랑원들은 통독하지 못했다</p>
---	--	---

<p>이라</p> <p>▷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p> <p>*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께 드리게 될 감사의 노래를 미리 부릅니다. 정 계 뒤에 펼쳐질 위로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도 그 노래를 다시 불러봅시다. (사 12장)</p> <p>▷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 셨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 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 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p>	<p>면, 통독에 참여하지 못 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 음을 갖지 않게 주의한 다.</p> <p>리더의 풍부 한 나눔을 통하여 통독 을 하지 못 한 사람들도 다음부터는 함께 하고 싶은 도전의 식을 갖도록</p>
--	---

<p>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기록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p> <p>*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살펴봅시다. (사 14:3~20)</p> <p>▷ 6절에서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바벨론의 힘이 막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습니다. 또한, 13~14절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못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며 교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p> <p>[나무 심기] (20분)</p> <p>* 당신이 중요한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가</p>		<p>기도하며 나아간다.</p> <p>되도록 사랑원들이 대답을 하게 하되,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함께 성경을 찾아보며, 자연스럽게 본문을 파악하게 합니다.</p>
--	--	---

<p>장 의지하는 사람이나 기준은 무엇입니까?</p> <p>▷ <u>리더의 나눔</u>: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을 가장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세상이 기준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p>		
<p>[물 주기] (8분)</p> <p>* 믿음에 의지하여 살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걱정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적은 지식에 현혹되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p> <p>기도한 내용을 토대로 기도제목을 나누며 합심 기도하면서 모임을 마무리합니다.</p>		<p>사랑원들이 나눔 기도제목은 반드시 적어둡니다. 합심기도하기 전에 기도제목을 정리해서 다시 짚어 준 후, 2~3분 정도 기도합니다.</p>

1년 12독 프로젝트

1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토대로 한 ‘마음과 생각’ 큐티가 정착되어 갔다. 그리고 성경의 더 많은 분량을 매일 통독하기를 원하는 한 집단이 조직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1년 12독’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1년 12독은 매 달 성경을 한 번씩 통독해서 1년이면 12번 성경을 통독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1년 12독’ 프로젝트에는 하루(24시간)의 십일조인 2시간 24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매일의 십일조라고 생각하여 그 시간 동안 성경통독을 하고 묵상도 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러한 성경통독과 묵상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스마트폰에 ‘1년 10번 성경듣기’ 앱(application, app.)을 다운받아 성경통독에 활용하였다. 이 앱은 조병호 박사가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낭독한 것을 1.4배속으로 들려주는데, 이를 통해 매일 1시간 30분씩 성경을 들으면 성경 전체를 1년에 10번 들을 수 있다. 처음에는 이 앱을 활용해서 성경통독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2배속을 통해서 성경을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들으면서 읽었다. 묵상할 때는 하루에 한 장씩 정배속으로 할 수 있지만, 통독할 때는 1.4배속을 2배속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면서 성경통독, 묵상, 그리고 기도까지 매일 2시간 24분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경통독 초기부터 1.4배속으로 해서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소리로 듣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거둘 수 있었다. 성경이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속도를 늦춰서 들어야 한다. 그러나 1년 12독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로 청년 리더들로서 성경통독 훈련이 밑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성경을 듣는 것에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았다.

해당 집단 내에서는 매일 읽을 성경의 분량을 정하여 일주일에 2회(화요일, 목요일) 따로 모임을 가졌다. 모이는 날에는 함께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통독해오기로 한 분량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 때, 성경의 내용을 알고 읽도록 성

경 전체의 흐름을 짚어주는 성경공부도 병행하였다. 그 결과, 계획대로 성경을 1년에 12독 했더니 참여자들에게서 성경이 체화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말씀 묵상을 하였더니 말씀이 참여자 안에 녹아져서 개인적인 삶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나아가 교회는 건물이나 물질이나 사람 수가 아니라 가치 중심으로 변화되고 부흥하게 되었다.

성경을 1년에 12번 읽으려면 30일에 1독을 해야 한다. 1년이 365일 임을 감안하면 정확하게 떨어지는 수치는 아니지만 이를 바탕으로 성경통독을 진행하였다. 또한, 40일에 1독을 하면, 1년에 약 10독을 할 수 있다. 1년 12독 및 1년 10독을 위한 성경 읽기표는 아래와 같다.

<표15> 1년 12독 성경 읽기표

일	분량	성경
1	1~12일	창1~36장
2	13~24일	창31장~출18장
3	25~36일	출14장~레13장
4	37~48일	레14장~민12장
5	49~60일	민13장~신6장
6	61~72일	신7장~수5장
7	73~84일	수6장~삿16장
8	85~96일	삿17장~시34편
9	97~108일	삼상22장~삼하17장
10	109~120일	삼하18장~잠20장

11	121~132일	잠21장~읍10장
12	133~144일	읍11장~시33편
13	145~158일	시35~150편
14	159~170일	왕상12장~암9장
15	171~182일	호1장~사24장
16	183~194일	사25~66장
17	195~206일	미1장~렘16장
18	207~219일	렘17~52장
19	220~231일	애1장~대상29장
20	232~242일	대하1~36장
21	243~254일	겔1~37장
22	255~266일	겔38장~스4장
23	267~279일	학1장~느13장
24	280~289일	말1장~마28장
25	290~302일	막1장~눅16장
26	303~315일	눅17장~요21장
27	316~327일	행1장~고전4장
28	328~340일	고전5장~행23장
29	341~353일	행24장~히13장
30	354~365일	빌1장~계22장

<표16> 1년 10독 성경 읽기표

일	분량	성경
1	1~ 9일	창 1~27장
2	10~ 17일	창28~50장
3	18~ 24일	출 1~18장
4	25~ 32일	출19~40장
5	33~ 42일	레위기
6	43~ 50일	민 1~17장
7	51~ 57일	민18~36장
8	58~ 70일	신명기, 시편90편
9	71~ 78일	여호수아
10	79~ 87일	사사기, 룻기
11	88~ 93일	삼상 1~16장
12	94~100일	삼상17~31장
13	101~111일	사무엘하
14	112~120일	왕상 1~ 11장, 잠 1~20장
15	121~129일	잠21~31장, 아가, 열왕기상11장, 전도서
16	130~140일	욥기
17	141~149일	시 1~ 78편
18	150~158일	시79~150편
19	159~168일	왕상12~22장, 왕하1~14장
20	169~174일	아모스, 호세아, 요나

21	175~185일	왕하15~20장, 사 1~36장
22	186~196일	사37~66장, 미가
23	197~201일	왕하21~23장,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24	202~211일	왕하24~25장, 렘 1~31장
25	212~222일	렘31~52장, 예레미야애가, 오바다
26	223~231일	역대상
27	232~242일	역대하
28	243~254일	겔 1~37장
29	255~264일	겔38~48장, 다니엘
30	265~275일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31	276~280일	느헤미야, 말라기
32	281~289일	마태복음
33	290~295일	마가복음
34	296~306일	누가복음
35	307~315일	요한복음
36	316~327일	사도행전 1장 ~ 고린도전서 4장
37	328~339일	고린도전서 5장 ~ 로마서 16장
38	340~350일	사도행전 20장 ~ 디모데후서 4장
39	351~357일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40	358~365일	요한일·이·삼서, 요한계시록

그 외 구체적인 실천

‘마음과 생각’으로 큐티를 실시하였을 때, 성경 전체의 흐름을 더 명확하게 알고 묵상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공감되었고, 기존에 읽어오던 성경통독의 분량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하루에 읽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것을 계기로 1년 12독 성경통독 모임이 결성되어 성경통독과 묵상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연구자는 큐티와 성경통독의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는데, 프로젝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실천해보게 하였다.

통하는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어 학업과 직장 일에 바쁘다보니 심방을 자주 할 수 없다. 이러한 목회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심방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통로가 SNS였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이라는 앱을 활용하여 단체 대화창을 만들고, 교인들이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며 기도한 내용을 올리면, 그 내용을 통해 교인들의 상태를 파악하였다. 대화창은 말씀 묵상방, 기도방으로 나누어 운영했다. 대화창에 올려진 내용을 봄으로써 교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심방의 효과도 얻었다. 따라서 성경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묵상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학교, 직장, 가정 등 모든 장소에서의 지침이 내려지게 했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지에 따라 피드백도 나눌 수 있었다. 즉, 본 연구를 통해 말씀이 마음에 내려와서 삶의 변화까지 이끌게 해야 한다는 연구자의 가치관이자 목회관을 실현해 갈 수 있었다. 이는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통한 ‘마음과 생각’ 큐티가 진행되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매일 성경통독 올리기

매일의 큐티는 주1회 회의와 매주일 소그룹 성경통독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점검하는 것으로는 계속해서 실천을 독려하기가 어

럽다. 그래서 스마트폰 대화창(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중 ‘말씀 묵상방’에 성경통독을 하고 묵상한 내용을 매일 실시간으로 올리도록 했다. 이 방법은 개인의 큐티와 성경통독을 점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들 간에 성경통독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주 1회 기도 올리기

‘마음과 생각’ 교재를 보면 매일의 큐티 마지막에 ‘함께 드리는 기도’가 있다. 이를 큐티의 마지막에 배치한 것은 역사 순서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 성경 전체가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기도를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구성원들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따르는 훈련을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카카오톡의 대화창에 ‘기도방’도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일주일 중에 수요일을 정하여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방에 올리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때 기도문은 매주 수요일마다 새로운 내용으로 올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도문을 올리는 수요일 저녁에는 기도 모임을 가졌다. 기도모임에 모이기 전에 각자 기도문을 기도방에 올리도록 하였고, 기도모임 시간에는 왜 그런 내용들에 대해 기도하게 되었는지 나누고, 그 나눔과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다. 기도에는 개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공동체, 나라, 세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도록 훈련했기 때문에, 기도 나눔을 통해서 폭넓은 사고를 하게 되는 효과도 있었다. 또한 기도 제목을 보면 필요에 따라서 심방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성경을 더욱 깊이 있게 읽으려 노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세계를 향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격려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제 VI 장

결과분석

조사개요

VI장에서는 ‘일년일독 통독성경’ 으로 성경통독을 하면서 3년간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한 프로젝트의 결과를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조사는 조사 대상자, 조사 지역, 표본 크기, 조사 방법, 표본 추출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연구자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온 20~30대의 청년들을 주축으로, 성경통독을 병행하면서 ‘마음과 생각’ 으로 하루에 한 장씩 꾸준히 성경을 묵상한 사람들인 프로젝트 참가자 전체이다. 이들은 2014년까지는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한 교회의 청년부에서 활동하였고, 2015년부터는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의 통하는 교회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연구 대상자 집단은 구성상 치평동 때부터 청년 리더로 활동해 온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큐티에 관한 개인적인 유익 이외에도 큐티를 소그룹 인도에 적용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할 수 있었다. 조사는 개별 면접, 감상문, 설문지를 활용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조사의 기본 설계를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17>과 같다.

<표17> 설문조사 개요

구분	청년 (20~30대)
----	-------------

조사 대상자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한 기독교인 청년
조사 지역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통하는 교회)
표본 크기	15명
조사 방법	개별 면접, 감상문, 설문지
표본 추출 방법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때부터 통하는 교회까지 계속 이어서 출석한 청년
실시 기간	2014. 09. 17 ~ 2015. 11. 18

조사내용

사례연구를 위하여 역사 순으로 성경을 읽어가며 묵상을 하였을 때의 장점 및 효과에 대한 개별 면접을 먼저 실시하였다. 이 때, 큐티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개인의 생각을 좀 더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보고서 형태의 감상문을 받기도 하였다. 다음은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를 하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장점과 소그룹 나눔에서의 장점에 대해 개별 면접을 한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1. 김○○

a. 개인적인 장점

1) 성경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게 함

(성경을 통으로 읽음으로써 성경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하나의 역사 이야기가 머리에 들어오게 됨.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들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게 함)

2) 전체 내용을 이해하며 묵상할 수 있음

(한 구절로 집착해서 목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목적에 벗어나게 되고 잘못된 목상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큐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알아 가다보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게 됨)

3)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을 생각하며 성경을 읽게 됨

4)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앎으로서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음

5)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식으로 풀어가면서 딱딱하지 않고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음

b. 소그룹 나눔에서의 장점

1) 성경을 사실 그대로 전할 수 있음

2) 성경을 이야기로써 쉽게 받아들임.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해주면 쉽게 이해하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임

2. 김○○

a. 개인적인 장점

1) 역사 순으로 통독큐티를 해 가니 어렵게만 느껴졌던 구약을 쉽게 접근함

2) 숲 보기와 숲과 나무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하기 힘들었던 구약 성경의 내용도 잘 이해할 수 있었음

3)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읽게 됨

4)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짐

(자신의 좁은 식견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고 넓은 시야로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말씀을 읽으며 깨달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됨)

5)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됨

b. 소그룹 나눔에서의 장점

- 1) 말씀에 대해 더 궁금해 하고 관심을 가짐
- 2)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자 함
- 3) 성경 전체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됨
- 4)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해 보려고 애쓰고, 자신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소그룹 가운데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었음

3. 안○○

a. 개인적인 장점

- 1) 역사순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꼼꼼히 이해하고 볼 수 있었음
- 2) 성경을 통독하면서 함께 ‘마음과 생각’ 을 하게 되면 통독하는 동안 놓쳤던 부분이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었음
- 3)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 말씀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줌
(나무보거나 숲 보기를 통해 자신의 머리로는 묵상하지 못했던 더 넓고 깊은 부분까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음)
- 4) 시대적 상황과 역사를 함께 알려주는 점이 좋았음
(어떤 시선으로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끌어 주었고 말씀을 이해하고 통으로 연결하는데 큰 도움을 줌)
- 5)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됨

b. 소그룹 나눔에서의 장점

- 1) 사랑원들에게 그 주의 큐티 부분에 대한 상황과 배경을 설명해주기 때문에 큐티하는 데 훨씬 이해가 잘 됨
- 2) 숲 보기와 숲과 나무 부분의 설명을 참고해서 묵상할 수 있어서 좋음

다음으로 개별 면접을 통하여 수집한 면담 내용을 정리하여 질문의 방향성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10개의 질문을 추출하였다. 또한 이 질문들은 본 논문의 III장에서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 할 때의 유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 라고 정리하면서, 그에 따른 세부적인 4개의 주요기둥을 세운 토대가 되었다. 각각의 주제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성경 읽기,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에서 성경 읽기, 사과의 폭이 확장되는 성경 읽기, 하나의 큰 스토리로 성경 읽기’ 이다. 설문지의 주요 내용인 10개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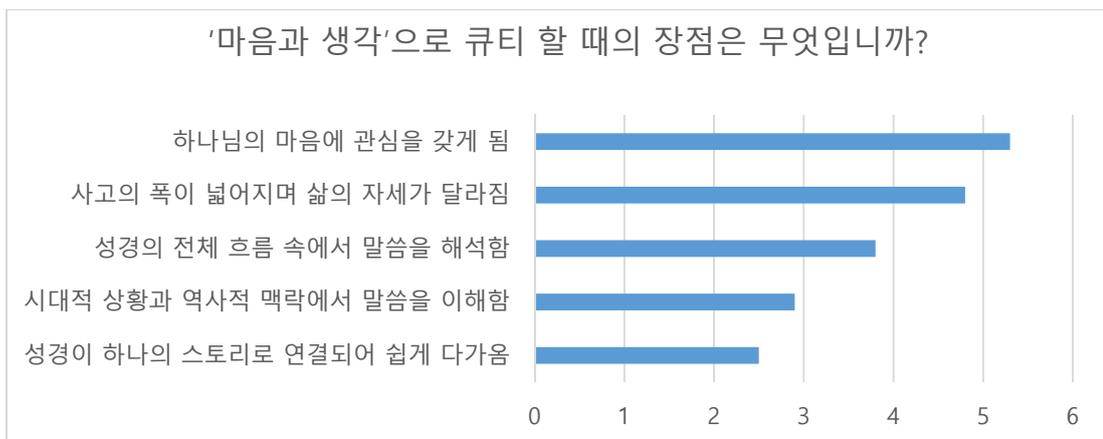
1.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 할 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2. 기존의 큐티 교재로 큐티 할 때, 묵상의 초점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3.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 할 때, 묵상의 초점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4. ‘마음과 생각’ 의 어떤 점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5.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 할 때,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을 아는데 효과적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효과적이었습니까?
6.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 할 때, 당신의 사과의 폭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7.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 할 때,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8.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 할 때,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9.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 할 때, 당신의 가치관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10.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 할 때, 당신의 변화된 행동은 무엇입니까?

도표제시

설문의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18>은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 할 때의 장점을 묻는 설문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18> ‘마음과 생각’ 큐티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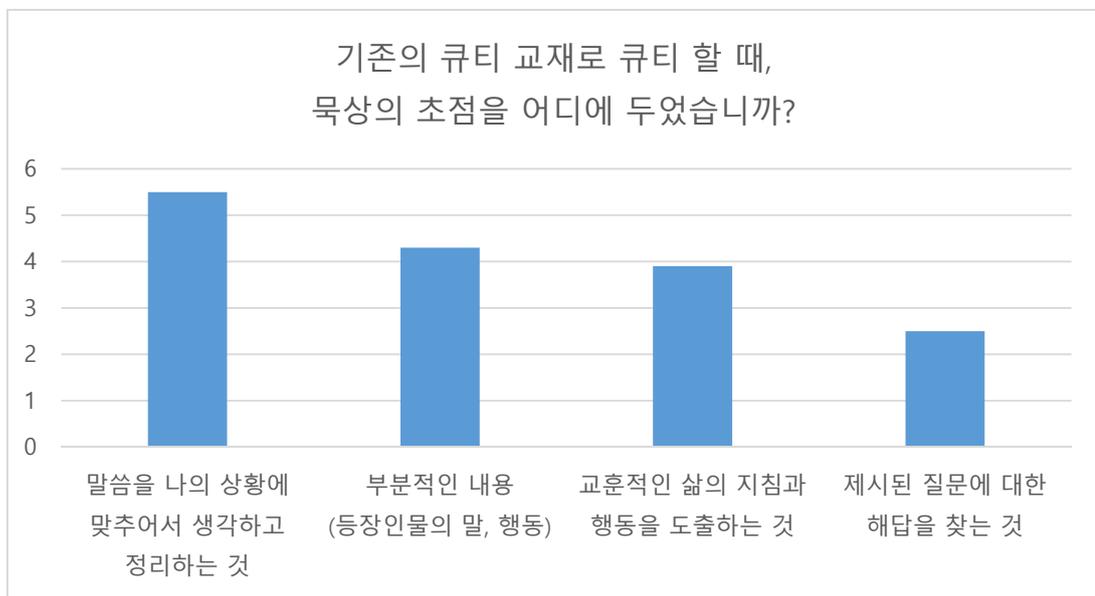


위의 결과는 중복응답을 포함하여 결과를 산출한 것이다.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 할 때의 장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됨 (92%)’ 이었다.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를 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교회에서 자주 듣는 표현 중에 ‘하나님의 뜻’ 은 있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도 알지 못

했고, 현실과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고 하였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에서 제시된 성경의 숲과 나무를 따라가면서, 성경의 각 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치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듯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고민하는 것이 목상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사교의 폭이 넓어지며 삶의 자세가 달라짐(80%)’, ‘성경의 전체 흐름 속에서 말씀을 해석함(57%)’,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에서 말씀을 이해함(42%)’, ‘성경이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어 쉽게 다가옴(35%)’의 순이었다.

다음 <표19>와 <표20>은 ‘큐티 할 때 목상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정리한 것인데, 기존의 큐티 교재와 ‘마음과 생각’에 대한 응답을 각각 조사하여 비교되는 지표를 발견할 수 있었다.

<표19> 기존 큐티 교재 큐티의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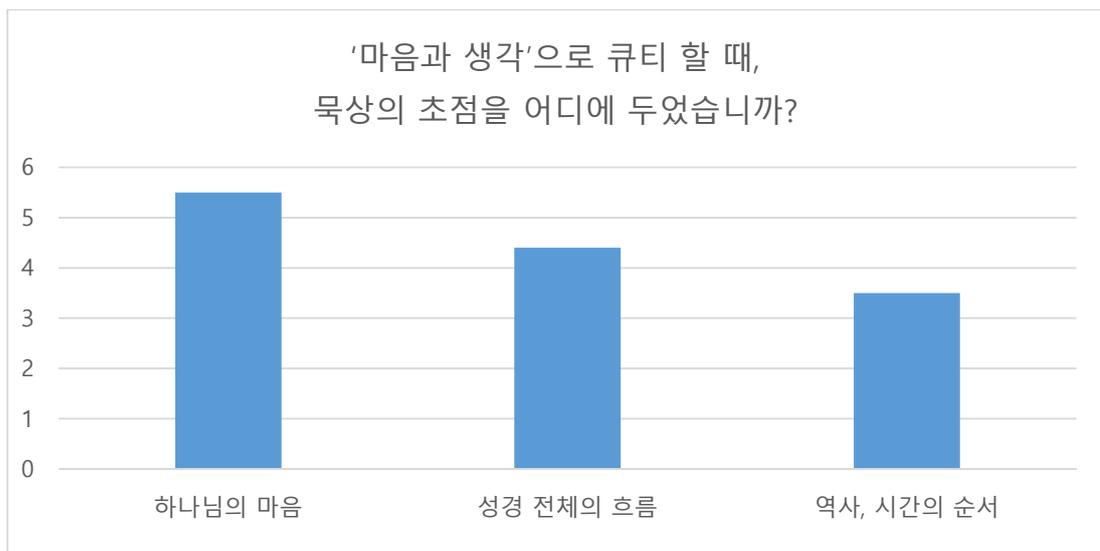
<표19>에서 기존의 큐티 교재를 이용할 때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목상의

초점이 주로 자신에게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가장 많은 응답을 보면 ‘말씀을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46%)’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부분적인 내용 (등장인물의 말, 행동)(37%)’, ‘교훈적인 삶의 지침과 행동을 도출하는 것(32%)’, ‘제시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25%)’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큐티 교재를 따라 큐티를 하게 되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단편적인 추론이나 인본주의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말씀을 묵상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묵상 방법은 일반 서적을 정독하는 방법과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표15>에서 ‘말씀’을 ‘글’로 바꾸면, 첫 번째 답변은 ‘글을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답변은 표에 나온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일반 서적을 정독할 때에는 독자의 생각에 맞추어 글을 읽는 것이 타당하고 또 당연하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성경을 읽도록 구성되어 있고, 이 점이 본 연구가 추구하는 큐티의 최종 목적이며 방향이다.

<표20>을 보면 ‘마음과 생각’으로 큐티 할 때에는 묵상의 초점이 하나님과 성경으로 옮겨지고 있음이 나타난다.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85%)’에 초점을 두게 된다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성경 전체의 흐름(68%)’과 ‘역사, 시간의 순서(47%)’의 순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게 된다는 점은 앞서 <표14>에서 논의한 바 있다. 이 때 ‘마음과 생각’에 제시되어 있는 성경의 숲과 나무에 대해 언급하였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음과 생각’을 통해 매일 한 장씩 읽게 되는 성경의 본문마다 숲과 나무가 있다. 일주일간의 숲과 나무가 모이면 더 큰 숲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모인 숲들은 성경의 각 권이 끝날 때마다 좀 더 큰 숲을 이루게 되고 숲들은 서로

연결된다. 바로 이 때 성경 전체의 흐름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본문 자체가 역사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제시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역사와 시간의 순서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을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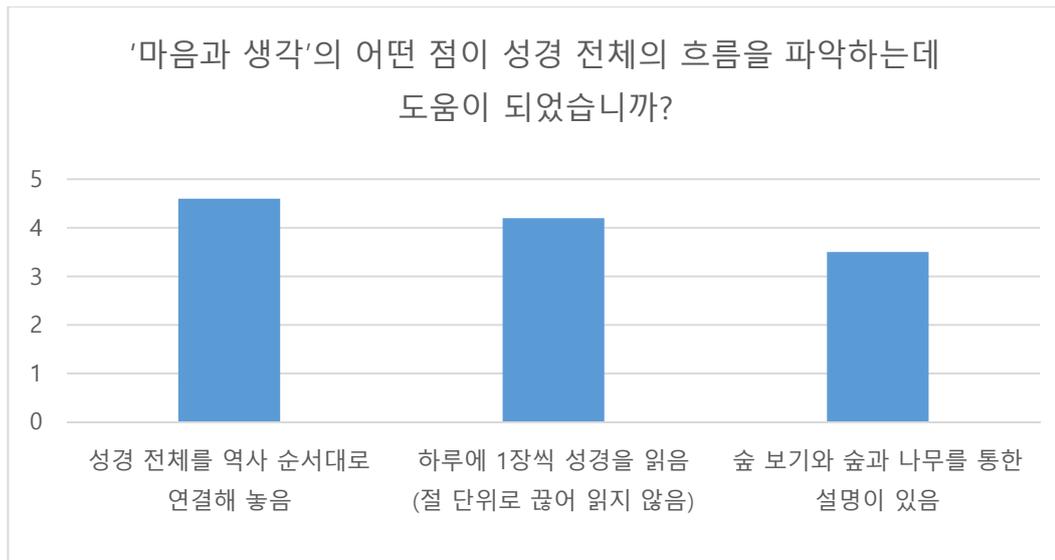
<표20> ‘마음과 생각’ 큐티의 방향성



<표21>은 ‘마음과 생각’의 어떤 점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의 결과이다. 이는 개별 면접 시에 자주 등장한 표현 중에 하나가 ‘성경 전체의 흐름’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작성한 질문이다. 이와 같은 답변은 그동안 다른 큐티 교재를 통해 꾸준히 성경을 묵상해 왔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 생활을 계속 해 온 청년 리더일지라도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성경을 읽어왔다는 것을 반증한다. 응답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마음과 생각’에 제시된 대로 성경을 하루에 1장씩 읽으며 묵상하는 방법을 따랐다. 본문 이외에 추가적인 설명으로 제시되어 있는 숲 보기와 숲과 나무도 빠짐없이 읽고 묵상에 적용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마음과 생각’이 역사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큐티를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나올 본문을 예상하며 자연스럽게 성경의 흐름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표21> ‘마음과 생각’ 큐티의 효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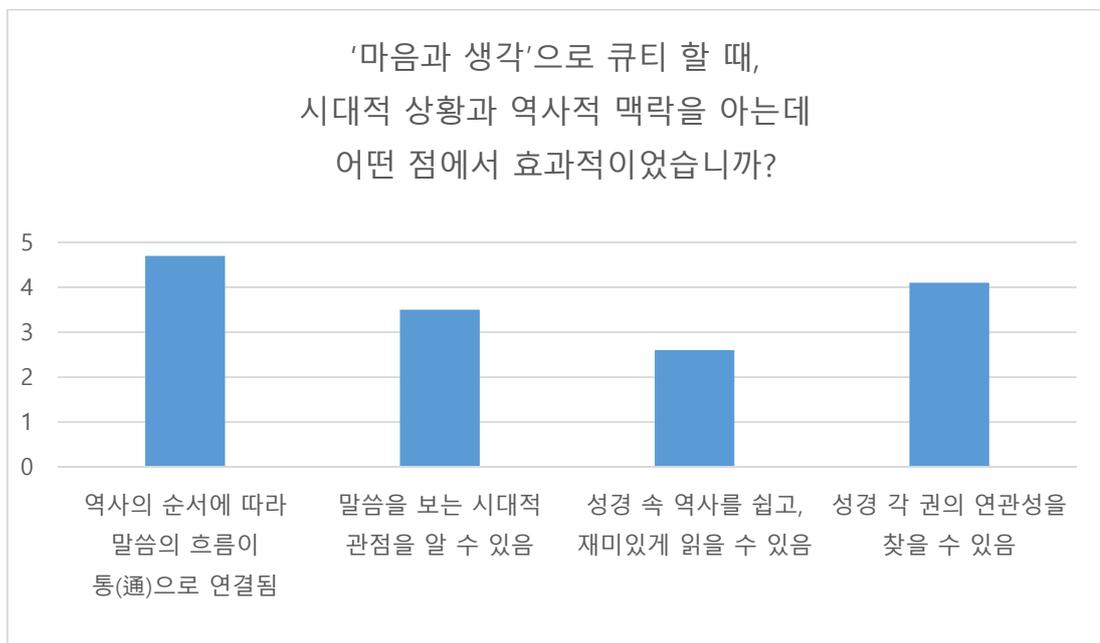


‘마음과 생각’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들은 성경 전체를 역사 순서대로 연결해 놓았기 때문(42%)이라고 하였다. 성경을 재배열하여 읽는 것은 성경의 흐름을 역사 순서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지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아는 것이 필요했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기 위해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다시 배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는 하루에 1장씩 성경을 읽는다는 점(39%)과 숲 보기와 숲과 나무를 통한 설명(32%)의 순이었다. 이 두 답변이 차지하는 백분율이 비슷한 것은 세 가지 요소 즉, 성경 전체를 역사 순서대로 연결해 놓음, 하루에 1장씩 성경을 읽음(절 단위로 끊어 읽지 않음), 숲 보기와 숲과 나무를 통한 설명이 있음이 함께 작용하여 성경의 흐름을 파

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22>는 역사 순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성경의 본문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아는데 어떤 점에서 효과적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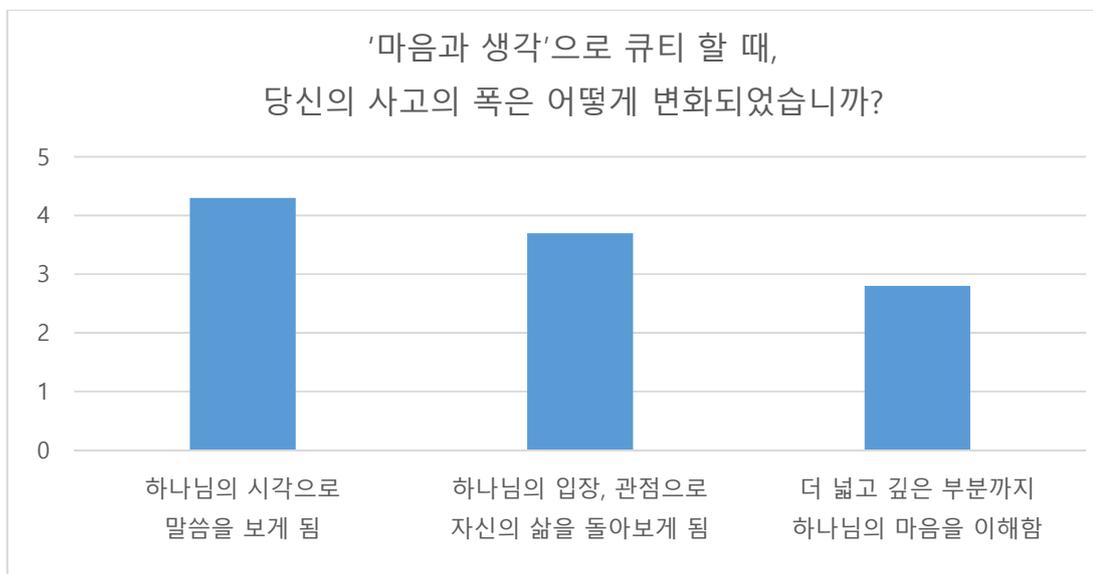
<표22> ‘마음과 생각’ 큐티의 효과2



응답자들은 ‘마음과 생각’으로 큐티를 할 때 ‘역사의 순서에 따라 말씀의 흐름이 통(通)으로 연결(56%)’ 된다는 점에서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을 아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성경 각 권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음(45%)’, ‘말씀을 보는 시대적 관점을 알 수 있음(39%)’, ‘성경 속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음(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일어난 시기와 장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위의 표는 실제 역사 순서에 맞게

시기와 장소가 배치되어 있을 때,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마음과 생각’으로 큐티를 했을 때 자신의 사고의 폭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특별히 이와 같은 경험을 한 경우는 사고의 바탕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다. 사고의 대상을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면 세계와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므로 시야가 넓어진다.

<표23> ‘마음과 생각’ 큐티의 효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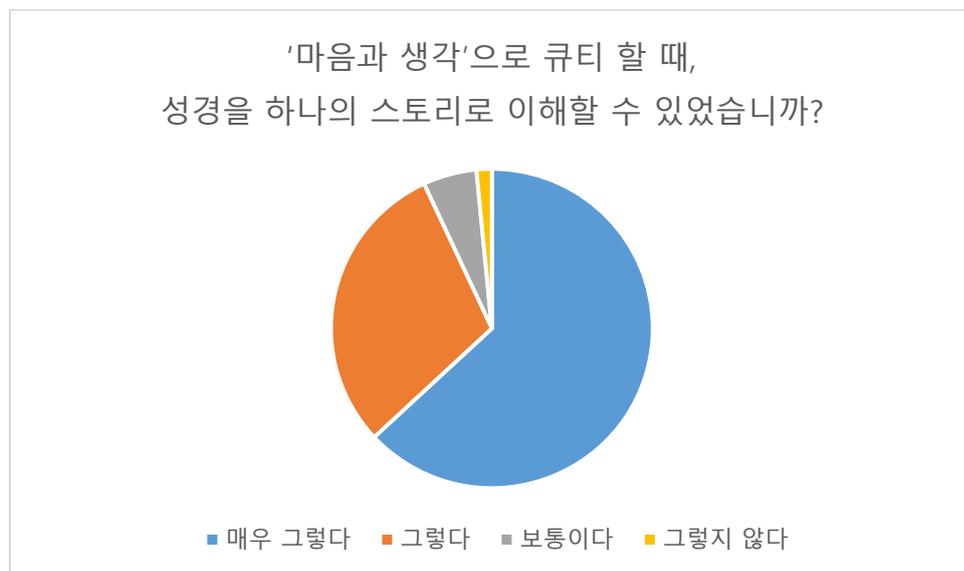


사고의 변화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보게 됨(64%)’, 다음으로 ‘하나님의 입장,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됨(48%)’, ‘더 넓고 깊은 부분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청년들의 사고가 개인에게 머무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으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을 묵상한 후에

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사고의 흐름이 하나님에서 말씀으로, 말씀에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되는 사고의 순환 과정이 목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일년일독 통독성경’ 으로 큐티를 할 때 얻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개인적인 변화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유발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점이다.

개별 면담 시에 응답자의 상당 수는 ‘일년일독 통독성경’ 에 의한 성경통독과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를 했을 때,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응답자에게 재질문한 결과, <표24>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표24> ‘마음과 생각’ 큐티의 효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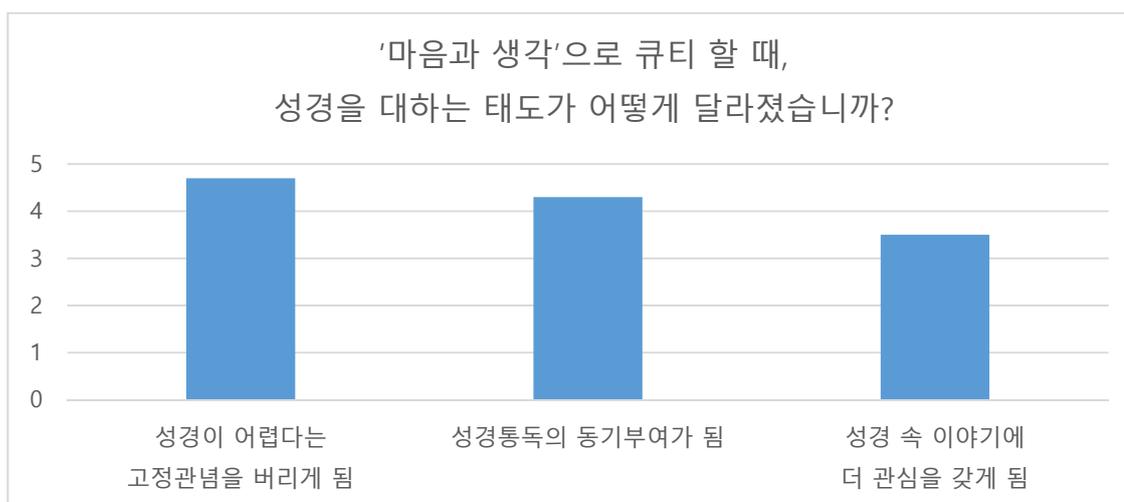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할 수 있었는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별로 체감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응답자는 전체의 98%

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매우 그렇다(63%), 그렇다(28%), 보통이다(7%)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그 동안 성경을 각 권마다 개별 된 이야기라고 생각해온 기성 기독교인들의 패러다임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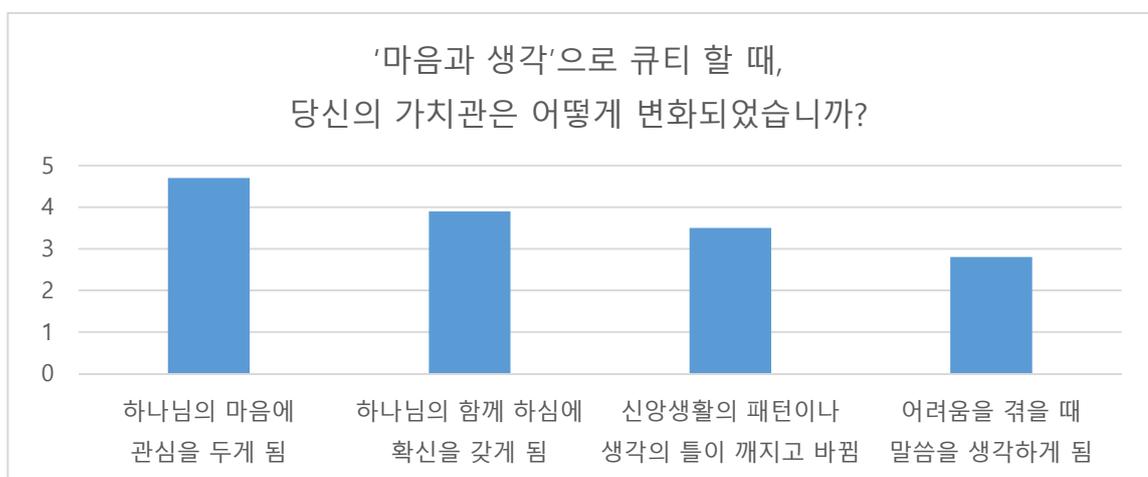
사실 그동안 성경을 이야기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는 습관이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존재해왔다. 이를테면 역대기는 역사 이야기이고 이사야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생각이다. 극단적으로 이사야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와는 별개의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사야도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남유다가 퇴락하고 있는 시기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 성경의 각 권은 하나의 큰 이야기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인 것이다. 한편 성경이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될 때, 뒤따르는 다른 유익들도 예상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표25>에 제시된 질문과 응답 결과로 정리할 수 있다.

<표25> ‘마음과 생각’ 큐티와 태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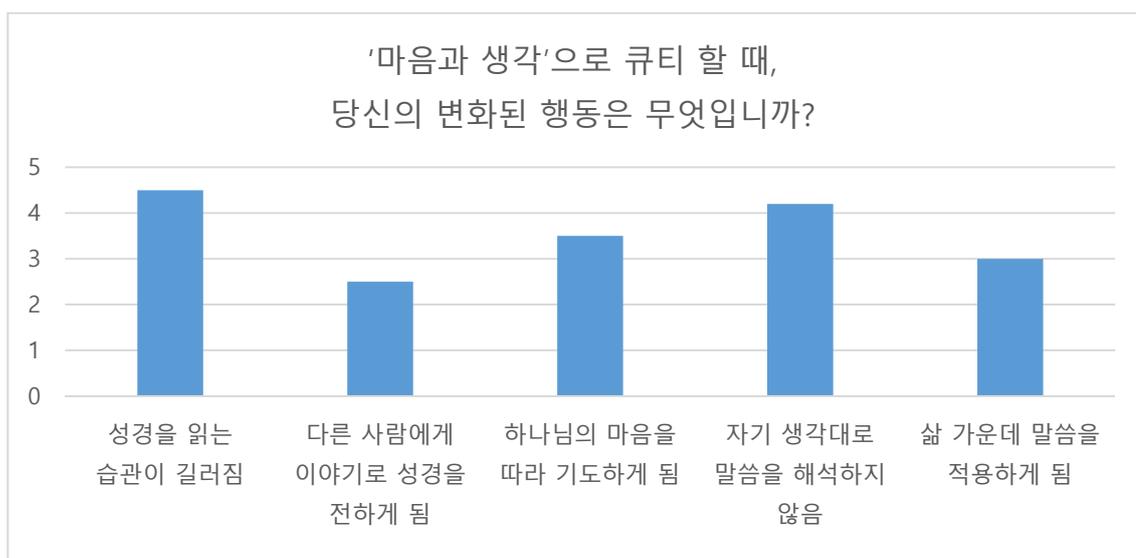
성경이 이야기로 다가오기 때문에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마음과 생각’으로 큐티를 할 때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느냐는 질문을 하였는데, 그 결과 <표25>과 같은 반응이 나타났다. 먼저 ‘성경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4%에 달했다. 이론은 어렵지만 이야기는 쉽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알게 된 이론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면 그 이론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알게 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작업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이야기는 듣는 순간 자기 것으로 이해하고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흡수력과 전달력은 이론에 비해 빠르고 효과적이다. 또한 ‘성경 속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응답자도 37%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렵게 생각하고 간과했던 성경의 부분들, 예컨대 시편, 잠언도 성경 속의 큰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온 작은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관심으로 끝나지 않고, 응답자의 43%에게는 성경통독의 동기부여를 하였다.

<표26> ‘마음과 생각’ 큐티와 가치관 변화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할 때 일어난 가치관의 변화 유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게 됨(57%)’ 이었다. 기존의 큐티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을 찾고 그에 따른 삶을 사는 가치관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목상하게 한 결과이다. 그러나 ‘일년일독 통독성경’ 으로 큐티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므로 자신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집중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확신을 갖게 되고(43%)’ , ‘어려움을 겪을 때 말씀을 생각하게 되며(28%)’ , ‘(그 동안의) 신앙생활의 패턴이나 생각의 틀이 깨지고 바뀌게(38%)’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큐티이고 목상이며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것인데 기존의 큐티 교재를 통해서 이러한 반응을 얻지 못했다. ‘일년일독 통독성경’ 의 목상은 모든 것이 성경의 화자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 즉, 말하는 이의 의도를 알아야 그 의도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27> ‘마음과 생각’ 큐티와 행동 변화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할 때 변화된 행동으로 답변한 것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성경을 읽는 습관이 길러졌다(58%)’ 는 점이었다. 실제로 응답자 중에서 뜻이 맞는 몇 명을 중심으로 성경통독 모임이 형성되어 1년 가까이 운영되기도 하였다. 그 다음으로 특징적인 변화는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되었다(53%)’ 는 점이었다. 역사 순서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깨닫게 된 많은 응답자들에게서 동일한 반응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다음 순위의 답변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게 됨(41%)’ ,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게 됨(35%)’ 과 같은 답변이 이를 뒷받침한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던 큐티가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 전환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로 성경을 전하게 되었다(24%)’ 는 반응은 성경을 통해 전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과분석

사례연구의 결과, 성경통독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마음과 생각’ 을 가지고 역사 순으로 성경을 읽으며 큐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 할 때의 장점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왜냐하면 이전의 큐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의 큐티 교재로 묵상할 때와 비교하면 묵상의 초점이 변화되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말씀 묵상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도록 바뀌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답변을 중심으로 ‘마음과 생각’ 으로 큐티 할 때의 유익과 효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둘째, 성경의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을 아는데 효과적이었다. 셋째, 사교의 폭이 확장되었으며, 넷째, 성경을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하게 되었다. 다섯째, 성경을 대하는 태도 및 가치관, 삶의 행동이 달라졌다.

조사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년일독 통독성경’으로 성경통독을 하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큐티하는 것은 현재 한국 교회가 직면한 큐티의 위기를 극복하고 말씀 묵상을 회복 시키며 교회의 본래적 목적 및 위치를 찾도록 하는 실마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VII 장

결 론

I 장에서는 성경의 일부분만 반복적으로 읽고 생각하는 것을 큐티라고 생각해 온 한국 교회의 큐티 문화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여 한국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묵상 방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그런 목적으로 본 연구가 이루어질 것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그간의 큐티 연구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분량에 관심을 둔 연구는 거의 전무했음을 발견하고, 성경통독이 기반이 된 묵상을 연구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후반부에서는 사례 연구 및 각종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전반적으로는 통(通)의 방법을 이용한 연구를 할 것임을 설명하고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논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소개하였다.

II 장에서는 새로운 묵상의 방법으로 ‘통성경큐티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 방법론은 ‘통(通) 방법론, ‘마음과 생각’, 왜 3년인가?’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通) 방법론’이란 조병호의 통(通)신학, 성경통독, 통성경 포물라를 집대성한 성경을 읽는 방법으로써, 성경을 ‘시간, 공간, 인간’, ‘개인, 가정, 나라’,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보는 것이다.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성경통독이므로 올바른 성경통독 방법에 대해 먼저 설명하였다. 둘째, ‘마음과 생각’은 기존 성경을 역사 순으로 재배열한 ‘일년일독 통독성경’으로 본문의 순서를 정하고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씩 묵상하도록 구성한 큐티 교재이며, 이 책의 구성 및 활용법을 안내하면서 역사 순서대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유익을 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왜 3년인가?’에서는 ‘일년일독 통독성경’으로 성경통독을 하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묵상을 하면 성경 전체를 묵상하는데 3년의 시간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먼저 인간이 변화하는데 3년의 시간이 유용함을 설명하고, ‘일년일독 통독성경’과 3년 큐티의 목차를 하나의 표로 만들어 서로 비교하면서 3년의 필요성을 시각적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성경 전체를 20 마당으로 나눈 것과 역사 순서대로 3년 간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순서와 내용 면에서 적절함을 표로 제시하였다. 넷째, ‘소리-생각 방법론’에서는 묵상의 고전인 렉시오디비나가 관조를 지향하는 경건 훈련임을 소개하고, 새로운 성경 읽기의 방법으로 소리-생각 방법론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소리-생각 방법론은 성경을 소리로 읽고 들을 때 상상으로 읽게 되고 성경에 드러난 은유를 파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 읽기 방법이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제안한 통성경큐티 방법론에 의거하여 말씀을 묵상했을 때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기존의 큐티에서는 성경의 일부분만을 반복해서 읽은 후 자기 생각을 곱씹거나 큐티 교재의 메디테이션을 읽는 것을 묵상이라고 착각하는 현상이 빚어졌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성경큐티 방법론을 따라 묵상을 하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까지 이르게 하는 올바른 묵상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이 때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성경 읽기,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에서 성경 읽기, 사과의 폭이 확장되는 성경 읽기, 하나의 큰 스토리로 성경 읽기라는 네 요소가 각각 전체, 맥락, 사과의 확장, 원 스토리로써 상호작용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완성하고 있음을 그림으로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IV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의 효과’를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게 되는 ‘헤게모니의 종결’이 일어난다.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주도권 다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승리를 돌려드리게 된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태도’를 갖추게 되면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난무한 현 세대 젊은이들의 마음에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킨다.

V장에서는 통하는 교회의 성경 읽기 사례를 소개하였다. 참여자들은 ‘일년일독 통독성경’으로 성경통독한 것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마음과 생각’으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묵상했고, 주일의 소그룹 성경 큐티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묵상이 정착된 이후에 새로운 성경통독 모임인 1년 12독 프로젝트로 발전하게 된 사례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외에 매일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한 내용을 SNS에 공유하거나 묵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매주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도 소개하였다.

VI장에서는 V장의 구체적인 적용 이후, 성경통독과 묵상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변화된 점을 여러 방면으로 조사하면서 말씀 묵상의 초점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게 된 것, 개인 묵상과 소그룹 나눔에서 얻게 된 효과, ‘마음과 생각’으로 묵상한 이후에 변화된 가치관, 세계관 및 묵상의 적용 방법과 개인의 행동 변화에 대해 표로 정리하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총 10개의 표를 통해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통한 ‘마음과 생각’ 묵상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경통독은 마음과 생각의 필터(filter)가 되는 과정이다. 필터를 통해 정수되는 물을 마시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마음과 생각은 필터링(filtering)된다. 말씀이 없을 때는 마음과 생각이 입력되는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

이 말씀이라는 필터로 걸러지면 정화된 삶이 출력된다. 즉,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요즘 시대에 이루어지는 많은 성경공부나 큐티 등은 실천적인 영역이지 이론적인 영역은 아니다. 그런데 실천적인 내용을 이론적인 내용으로 바꾸고, 그 이론을 알게 된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의 불균형이 나타났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지 못한다면 성경은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책에 불과하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며, 이론과 실천이 분리된 묵상은 불필요한 것이다.

‘일년일독 통독성경’으로 성경통독을 하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묵상하는 방법은 삶에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무의미한 큐티의 현장에서 오아시스 같은 존재이다. 묵상의 초점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꿈으로써 큐티의 주도권을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다.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파악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역사적인 순서대로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그 마음에 비추어볼 때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서 고쳐야 할 점들을 깨닫게 된다.

또한 이 방법은 기존의 큐티와는 달리,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3년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성경의 짧은 몇 구절만 읽으면서 하루아침에 태도의 변화를 도출해내려는 기존 큐티 교재들이 주는 조급함을 보완하였다. 입력이 제대로 되어야 출력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묵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밖으로 표출되는 삶의 자세와 행동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일년일독 통독성경’을 통한 꾸준한 성경통독과 ‘마음과 생각’을 통한 성경 묵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며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신앙은 말씀에 대한 훌륭한 이론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 가운데서 잘 믿는 사람은 필요하지만 교회에서 잘 믿는 척 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속에서 훌륭한 교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훌륭한 교인이며 훌륭한 신앙인이길 바란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잘 믿는 척 할 수 있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척 하고 잘 믿는 척 할 수 있다. 결국 교회가 불편하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뜻이다. 그리고 교회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편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 제대로 서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Leonard Sweet은 오늘날 교회가 앓고 있는 심각한 질병을 ‘예수결핍장애’라고 했다.¹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다. Sweet에 의하면 “미국 교회의 집회나 회의에 참석해도 성경, 예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어렵다. 주로 리더십 강좌나 교회의 새로운 전략 프로그램 이야기를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즈니스 그룹의 전문가들이 교회에 와서 컨퍼런스를 한다. 교회가 비즈니스 전문가를 초청한다.”고 한다.² 오늘날 한국 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회가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교회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다.

요즘은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가 문제화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요즘 교회 같으면 안 나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생각도 든다. 왜냐하면 가치와 변화가 없는 교회에 나가는 교인들이 이상한 것이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떠나가는 구도자(求道者)

¹ 레너드 스윗 “서울 은 세계적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박사,” (중앙일보 2010년 4월 15일).

² Ibid.

들이 오히려 정상적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러한 구도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들이 제대로 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일 것이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와 상(像)을 드러내는 교회가 있다면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읽고 묵상함으로써 교인들이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고, 성숙한 교인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무가치한 일에 집중하지 않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 모든 교인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야기로 파악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깊은 묵상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공감하는 것이다. 이는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며 삶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읽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된다. ‘일년일독 통독성경’으로 성경을 통독하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했던 청년들에게 일어난 많은 변화를 통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말씀의 가치를 확신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성서한국을 꿈꾼다.

참고 문헌

국외서적

Masini, Mario. *Lectio Divina: An Ancient Prayer That Is Ever New*. New York: St. Pauls, 1998.

번역서적

Bayly, Lewis. 조계광, 안보현 역.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레너드 스윗.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서울: 예수전도단, 2014.

사이토 다카시. 황혜숙 역. *오래 앉는 아이*. 서울: 로그인, 2013.

국내서적

권영석. *2012 한국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학원복음화협의회, 2012.

김경태.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1*. 서울: 멘토르, 2006.

김양재.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서울: 홍성사, 2013.

김은애. *큐티 라이프*. 서울: 두란노, 2011.

두란노서원출판부. *큐티 자료모음 종합편*. 서울: 두란노, 2010.

라채광. *큐티가 어려우십니까?*. 서울: 두란노, 2011.

서승동.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경기: 예수전도단, 2008.

서정록. *잃어버린 지혜 듣기*. 샘터, 2007.

성경통독원. *성경통독원 화보집 1989-2010*. 서울: 통독원, 2010.

여주봉. *십자가의 복음 I*. 서울: 요단, 2011.

오방식. *성서와 거룩한 독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이연길. *이야기 설교학*. 서울: 쿰란출판사, 2003.

- 정성국, 지형은, 송인규. *한국 교회 큐티 운동 다시 보기*. 서울: IVP, 2015.
- 조신영, 박현찬. *경청*. 위즈덤하우스, 2007.
- 조병호.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서울: 통독원, 2013.
- 조병호. *마음과 생각 12월호*. 서울: 통독원, 2014.
-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2.
-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2.
- 조병호. *성경 통독과 통(通)신학*. 서울: 통독원, 2012.
- 조병호. *일년일독 통독성경*. 서울: 통독원, 2011.
-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6.
- 조병호. *통이다 LET' S 通*. 서울: 통독원, 2009.
- 하용조. *하용조 목사의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서울: 두란노, 2008.
- 허성준.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왜관: 분도출판사, 2003.

논문, 잡지

- Sloan, Douglas. "Imagination, Education, and Our Postmodern Possibilities." 15, *ReVision*, 1992.
- 김귀곤. "브랜드확장평가의 동서양 문화적 차이에 대한 심리적 기저에 관한 연구: 제품범주정보의 간섭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8.
- 김명란. "로마서 4장에 나타난 바울의 아브라함 이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aul's understanding of Abraham in the Rom 4."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2013.
- 김병중. "事例分析을 통한 韓國教會 QT 活用 方案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1.
- 김삼문.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설교자의 에토스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

- 교, 2011.
-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성경교수방법으로서의 내러포 탐구.” 84, *신학과 세계*, 2015, 526-554
- 김영미. “듣기 전 단계에서 CALL을 통한 변화음 연습이 영어 청해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practicing sandhi with CALL on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2001.
- 김진홍. “韓國教會 敬虔訓練으로서의 QT 研究와 適用方案: Lectio Divina의 批評的 觀點에서-A Study on QT as the Practice of Piety and Its Application Method in Korean Church: With a critical view of Lectio Divina.”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08.
- 김철. “기독교 목상이 대학생들의 주의력집중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3.
- 류충열. “영성수련의 한 과정으로서의 관상기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Contemplative Prayer as a Process of Spiritual Discipline.”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2008.
- 백현철. “신앙의 대 잇기를 통한 교회 사역 활성화 방안 연구: 성산교회 신앙유산 서약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2.
- 손태주. “Lectio Divina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성에 대한 연구: 경기성서신학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8.
- 이기훈. “큐티의 영성: 신학적 토대와 목회적 적용.”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2013.
- 정미형.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운 하용조의 큐티식 강해설교에 관한 연구-The Study of the Quite Time(Q.T.)-Approached Expository Sermon of Pastor Ha Yong-Jo, of Building up the ‘Church of the Acts’ .”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2014.
- 최영인. “성경 플롯을 드러내는 성경적 이야기식 설교 연구: 『창세기를 중심으로-A Study of Biblical Narrative Preaching Revealing The Bible Plot』.”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4.
- “세계적인 미래학자 美 드류대 석좌교수 레너드 스위트 ‘변화의 시대에 불변의 복음을 이야기로’ .” 국민일보 2014년 1월 21일.

“성경을 이 시대의 문화로 읽고 소통해서 예수 재발견해야.” 기독교타임즈 2014년 1월 22일.

“새로운 성경이해, 이제는 ‘통성경’ 이다.” 기독교신문 2014년 12월 8일.

“기독교, ‘내러포’ 로 소통하라.” 당당뉴스 2014년 1월 18일.

“교회,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중앙일보 2008년 5월 1일.

“서울 온 세계적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박사.” 중앙일보 2010년 4월 15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총회신문 2009년 1월 28일.

Website.

네이버 지식백과, 『교육심리학용어사전』 (학지사, 2000).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doopedia).

네이버 지식백과, 『라이프성경사전』 (생명의말씀사, 2006).

네이버 지식백과,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네이버 지식백과,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네이버 지식백과, 『영어사전』 (두산동아, 2008).

네이버 지식백과, 『태아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통독큐티 <http://www.tongbooks.com>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Gwangjung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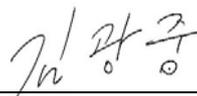
Place and Date of Birth: Gwangju, South Korea, Jan.14, 1968

Parent's Names: Yongan Kim and Soonhee Choi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Jinheung High School 307 Wangbuddleno, Kwangsan-gu, Gwangju, South Korea	Diploma	Feb. 12, 1986
Collegia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77 Yongbongno, Buk-gu, Gwangju, South Korea.	B.E	Feb. 26, 1993
Graduate: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77 jejungno, Nam-gu, Gwangju, South Korea	M.div	Feb. 19, 2002
	TH.M	Feb. 10, 2004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Gwangjung Kim

Name typed

May 6, 2016

Date